

코스피	코스닥
3883.68 (+59.84)	879.15 (+6.65)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572 (-0.028)	1430.80 (+3.00)

韓美 관세협상 ‘끝장 회동’… 對美 車수출 회복 분수령

김용범·김정관, 이틀만에 재방미
APEC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 예고
車관세·투자조건 막판 조율 남아
김용범 “국익 맞는 타결안 찾을 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막판 후속 조율을 위해 귀국 이틀 만에 다시 미국으로 향했다. 양국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이미 협상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몇가지 쟁점이 남아 추가 협의를 위해 급히 방미길에 오른 상황이다.

22일 오전 김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 간 의견이 많이 좁혀졌지만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한두 가지 분야가 남아 있다”며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이틀 만에 다시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협상단은 이번 방미를 통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관세협상 세부 조율에 나선다.

이번 협상은 양국 정상인 AP EC를 불과 일주일 앞둔 만큼 사실상 양측의 마지막 담판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큰 틀에서 양국 관세협상 그림이 이미 그려진 상태에서 몇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줄다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측으로선 최대 수출품목인 대미 자동차 수출이 큰 폭 감소하고 있는만큼 이번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압박이 크다. 협상에 보다



메트로경제 ‘2025 제약·바이오포럼’ 성료

22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5 제약·바이오포럼’에 참석한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가 기조강연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협상 결과는 대미 자동차 수출 회복과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대비 현재 66% 수준으로, 품목별 관세 25%에서 15%로 감소할 경우 연말부터 본격적인 회복세가 예상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 1~9월 자동차 수출은 540억8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지만, 미국과 북미 수출은 각각 268억3300만 달러(-11.9%), 226억6900만 달러(-14.4%)

로 감소했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 호조가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한 상황이다.

관세협상 타결 시 ▲미국 상호관세 25% → 15% 인하 ▲3500억 달러 투자 규모 유지 ▲단계적 투자 및 보증·대출 확대 ▲조선협력 프로젝트 MASG A 가동 등 투자·교역 패키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미국 측으로서도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 한국의 투자 지연 손해를 볼 수 있어 APEC 정상회담을 전환점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와 통상 전문가들은 남은 쟁점으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단계적 투자와 보증·대출 확대, 원화 투자 활용 △한미 간 이익 분배 방식 및 외환시장 안전장치 △미국산 대두수입 확대 등 통상 및 투자 관련 사항을 거론한다. 또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합의했지만 발표되지 못했던 안보 관련 사안(국방비 증액, 우라늄 농축 제한 완화 등)도 이번 협상에서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국제금값 6.3% 뚫 12년 중 낙폭 최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금 선물 가격도 동반 급락세

고공행진하던 국제 금값이 21일(현지 시간) 6%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최근 12년 중 최대 낙폭을 보이고 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1시45분 온스당 4115.26달러로 전장 대비 5.5% 하락했다. 장중 6.3% 떨어진 4082.03달러까지 내려가면서 2013년 이후 최대 일간 낙폭을 기록했다.

국제 금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약 60% 상승하며 파죽지세의 면모를 보였다. 전날까지도 현물 기준 온스당 4381달러 선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3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과 함께 위험자산 선호가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 기업들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증시를 견인하고 있다.

금 선물 가격도 동반 급락세를 보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온스당 4109.1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전장보다 5.7% 하락했다.

국제 은 현물도 같은 시간 전장 대비 7.6% 급락한 온스당 48.49달러에 거래됐으며, 백금 가격도 5% 내리면서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오늘 24일 예정돼 있는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로 향한다. 미국 연방정부의 섣다른(한시적 업무 중단)으로 인해 주요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중단되면서 당초 발표 예정일이었던 15일보다 9일 지연됐다.

오는 28~29일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통화정책 결정까지 예의주시될 것으로 보인다. /신하은 기자 godhe@



국제 금값이 1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모니터에 국제 금 시세가 나오고 있다. /뉴스

공적연금 의존 92%… 퇴직·개인연금 참여율 절반 수준



① 연금 3층탑 쌓아라

노후생활비 월 120만원 부족
연금 운용 주도권이 노후 좌우
“퇴직·개인연금 비중 높여야”

등산의 목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무사히 내려오는 일이다. 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사고가 더 많이 나기 때문이다.

연금도 마찬가지다. 무작정 모으는 것보다 노후까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설계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나의 연금이 무너지는 것을 대비해 국민연

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세개의 다리, 즉 연금 3층탑을 균형있게 쌓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KB골든라이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자금은 월 350만원인 반면 실제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23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생활비와 비교해 120만원 부족하다.

이는 은퇴가구의 대부분이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학·군인·공무원연금의 공적연금을 보유한 은퇴가구는 92.1%로 가장 많았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보유한 가구는 각각 54.3%, 53.8%에 불과했다.

황원경 KB금융경영연구소 부장은 22일 “한국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지만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는 의지와는 달리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노후 생활비 재원을 공적연금에만 의존해 소득보장이 취약한 가구가 3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비중을 높여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퇴직연금, 운용따라 달라져

퇴직연금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선 금액이 아니라 운용의 주도권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급여(퇴직금)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다. 이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다.

우선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중이라면 확정급여형(DB)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DB는 회사가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것으로, 계속 근로연수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곱해 계산한다. 예컨대 연봉 6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년 임금에 5% 상승하는 회사에서 20년을 다니고 10년간 회사를 더 다닐 경우 퇴직급여는 2억2294만 원이다.

임금피크제로 연봉이 줄어든 경우 확정기여형(DC)형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다. DC는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매년 퇴직급여를 납입하면 근로자가 운용방법을 선택해 퇴직급여를 수령한다. DB형과 달리 임금감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의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 10·15 대출 규제 직접 영향권 /사진 뉴시스
▲박지원 “전한길, 싱가포르에李대통령 비자금 1조? 정신나갔다”

▲중기중앙회 찾은 국힘 지도부 “APEC까지 관세협상 성과내야”
▲국힘 밸류업특위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 공감… 11월 은행권 간담회”

▲1심서 무죄 받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서 징역형
▲한미 비자 워킹그룹 2차 회의… 韓기업 전담팀 운영방식 협의

日, 첫 女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취임… ‘초엔저’ 재개되나

1년 안팎 기간 동안 세번째 총리 다카이치 ‘아베노믹스’ 재개 천명 엔저 부추겨 원화 동반하락 가능성

전문가 “日 경제 인플레이션 국면 슈퍼엔저 상황 재개는 어려울 것”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출범하면서 ‘초엔저’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신임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양적 완화에 기반한 ‘아베노믹스’ 재개를 천명하면서, 엔저를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화 가치는 엔화 가치와 동조화가 큰 만큼, 엔화 약세가 재개되면 원화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취임사에서 “일본은 지금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과감하게 행동하며 첫날부터 전속력으로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자민당 총재 경선 당시부터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나에노믹스’라는 신조어도 출현했다. 자민당이 지난 7월 처리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진 참·중의원 선거에서 참패했고, 26년간 자민당과 공조했던 공명당과의 연립도 붕괴하면서 자민당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것.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이름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를 결합한 신조어인 ‘아베노믹스’는 최저 수준의 금리와 무제한적 통화공급에 기반한 양적완화 정책이다. 일본에서

1990년대부터 지속된 디플레이션 상황을 극복하고,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정상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도입됐다.

아베노믹스는 지난 2024년 3월 일본 은행이 17년 만에 ‘마이너스 수준’이었던 중앙은행 금리를 0%대로 인상하면서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종료를 선언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급격한 물가 상승과 물가를 따

라가지 못하는 임금 상승률 등 경제정책 실패 이후 사퇴했고, 뒤를 이어 취임한 이시바 총리도 금융 소득세 인상, 임기 중 쌀값 폭등 등을 겪고 1년만에 사임했다. 1년 안팎의 기간 동안 세번째 총리가 취임한 가운데 경제 정상화는 신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아베노믹스의 재개를 천명한 다카이치 총리로 취임하면서 환율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슈퍼 엔저’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달 초 달러당 147.05엔 수준이었던 엔-달러 환율은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달러당 151.87엔까지 상승(달러 대비 엔화 가치 하락)했다.

원화 가치는 엔화 가치와 동조성이 크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 원화 가치도 함께 상승하며,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원화도 함께 하락한다. 실제 다카이치 내각 출범이 확정된 지난 21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8.6원 오른 1427.8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30분 종가)를 마쳤고, 야간 거래에서는 1432원까지 상승했다.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을 우려한 외환당국이 지난 13일 구두개입에 나선 이후 최고

수준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난해 100엔당 800원대 수준의 ‘슈퍼 엔저’가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아베노믹스’가 추진됐던 배경과 일본의 현 경제상황 간에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아베노믹스 추진 당시에는 일본 경제의 가장 급선무는 디플레이션 탈출이었고, 일본 중앙은행과 공조해 막대한 유동성을 풀 수 있었다”면서 “현재 일본 경제는 인플레이션 국면에 이미 진입해 있고, 과도한 돈풀기 정책은 인플레이션이 아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경제와 금융시장이 이전 아베노믹스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사나에노믹스’의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 강도는 아베노믹스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며 “오히려 미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과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사이클을 고려하면 엔화 가치는 점진적이지만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AI도입, GDP 12.6% 증대… 성장둔화 상쇄”

구윤철 부총리, APEC 모두발언 “기업·공공·국민 등 AI대전환 추진 AI 7대 프로젝트에 R&D 등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도입이 한국 경제의 국내총생산(GDP)을 10% 넘게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간 AI·디지털 전환 협력을 제안했다. 그는 AI 전환이 한국 및 세계 경제의 둔화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 부총리는 22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합동세션 모두발언에서 “저는 AI 발전이 한국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라는 신념으로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한 국내 보고서에 따르면 AI 도입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1.1~3.2%, 국내총생산(GDP)을 4.2~12.6% 높일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둔화를 상당히 상쇄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어 챗GPT의 답변을 소개했다. 그는 AI와 디지털 전환을 위해 회원 정부와 APEC 전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최근 챗GPT에 물었다며 “APEC이 회원 간 정책 일관성·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고, 디지털 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협력할지 그 세부 사항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의 한 보고서

내용도 공유했다. AI 도입이 전 세계 GDP를 최대 4% 증가시킬 수 있지만 성장의 혜택은 선진 경제 위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공동 번영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이 제조업 기반과 ICT 인프라에 강점을 지녔다고 했다. 이에 AI 로봇, AI 자동차 등 피지컬 AI 7대 프로젝트에 R&D, 규제 완화, 금융 등 패키지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 국민이 AI를 한글처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디지털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AI와 디지털 전환을 위해 회원들의 정책방향을 서로 공유하고 향후 APEC의 협력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마련될 ‘구조개혁과 AI 주도 디지털 전환’의 APEC 경제정책보고서에 안전한 AI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APEC의 구체적 협력 방향이 제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北, APEC 일주일여 앞두고 ‘탄도미사일’

李 정부 들어 처음… 안보회의 열어

북한이 다음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 가량 앞둔 22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오전 8시10쯤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다. 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발사돼 동해상이 아닌 내륙에 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정확한 제원을 정밀분석 중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

다.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5월 8일 이후 5개월여 만이다. 당시 북한은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 등 자극 요인이 있을 때마다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남북 대화를 강조했음에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APEC 정상회의의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직전인 29일에 방한할 예정이라는 점이 이번 도발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이날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과 함께 긴급 안보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서예진 기자 syj@

“쟁점 남은 상태로 MOU 체결 고려안해”

>> 1면 ‘韓美 관세협상…’서 계속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에 만약 통상 MOU 등 부분에서 (협상) 완료되면 통상 분야도 발표할 것이고, 지난번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큰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과들도 한 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단은 APEC 정상회의까지 협상 타결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부만 합의해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APEC 정상회담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겨두고 사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장관도 “마지막 1분 1초까지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마무리라기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며 협상을 이어가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은 전날 두 차례에 걸쳐 이재명 대통령에게 협상 상황을 보고했으며, 대통령 재가 후 즉각 방미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180만원대’

임금근로자 월급 평균 320만원 넘어 비정규직 208만원, 정규직 389만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역대 가장 큰 수준인 180만 원대까지 벌어졌다. 올해 임금근로자(정규+비정규)의 월평균 임금은 320만 원을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8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20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만7000원 올랐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8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4만 원 늘었다. 정규직은 전년보다 10만 원 증가한

389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80만8000원으로 1.9배에 달한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수준이다.

다만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할 시 비정규직의 월급은 전년보다 8만 원 늘어난 303만7000원으로, 정규직과의 격차는 85만9000원까지 좁혀진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임금격차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역대급 불장에 투자열기 최고조… 과열 베팅 규모도 커져

코스피 최고치 랠리

주가 상승 기대 커져… 빗투족 증가
대차거래 잔액 두달새 23% ‘경충’
“3800선 숨고르기 구간 들어설 것”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빗투족’이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로 재진입하자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증시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서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14조4913억원(21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7일 연속 14조원대다. 연초에 비해서는 5조3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투자자들의 주가 상승 기대가 커질수록 신용 잔고도 불어난다.

증권사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만이 아니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104조6842억원이다. 지난달 말보다 8576억원 증가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연속 신용대출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



2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인 모습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10·15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각종 규제로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가 꺾였는데 마통 인출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최근 활황인 증시 투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 3900선 육박

‘빗투족’이 급증한 것은 코스피 영향이 크다. 이날 코스피는 1.56% 상승한 3883.68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다. 이달 들어 처음으로 3500선과 3800선을 차례로 돌파한 데 이어 3900선 턱밑까지 치솟았다. 지난 14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

어한·미 관세협상 타결 기대와 한·중 무역갈등 완화 가능성 등이 시장에 흘러나오면서 증시를 밀어 올렸다. 여기에 반도체 ‘수퍼사이클(초호황기)’ 전망이 주가를 밀어 올렸고,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중 자금이 부동산에서 증시로 올 수 있다는 기대도 작용했다는 평가다.

증시 주변에는 돈이 넘쳐난다. 21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80조3298억원에 달한다. 전날보다 3000억원 가량 줄었지만, 사상 최고치 수준이다. 투자자예탁금은 고객이 증권사 계좌에 맡긴 잔액의 총합으로, 흔히 투자를 위한 ‘실탄’에 비유되며 주가 상승 기대에 비례해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증시로 자금이 향할 수밖

에 없는 구조라고 말한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정부가 자금 파이프라인을 국내 증시로 연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줬기에 부동산 투기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기간 풀린 막대한 유동성으로 자산 가격 전반이 뛰는 ‘에브리싱 랠리’ 상황에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향하는 것을 막은 건 정부의 성과”라고 덧붙였다.

투자처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도 감지된다. 한국갤럽이 7월 17일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을 물은 조사에서 ‘주식’(31%)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갤럽이 2000년 같은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 부동산(23%)을 앞섰다.

교보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4분기 실적 시즌이 내년 1~3월인 것을 고려하면, 주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 모멘텀을 동반한 상승이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매도 잔고 연중 최고치 경신

증시 과열에 베팅하는 투자자들도 늘었다. 지난 17일 기준 코스피 공매도 순 보유 잔고는 12조3183억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3월 31일(3조9156억원) 이후로는 215% 급증한 수치다. 이달 들어서도 약 8%(9116억원) 불어났다. 같은 기간 코스닥

공매도 잔고 역시 4조9789억원으로 5조원에 근접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추후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매수해 갚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대기 자금으로 꼽히는 대차거래 잔액은 9월 초 95조5898억원에서 이달 21일 기준 117조4753억원으로 22.9% 급증했다.

‘빗투 거품’이 꺼진 후 날아올 청구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시장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 덕분에 2007년 2000선을 돌파했다가 1년 뒤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추락한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경계감이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단기 고점 인식 속 주도주 차익 실현 욕구 점증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3800포인트 선을 전후로 수급 공방전 속 숨고르기 구간에 돌입할 전망”이라며 단기 과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반도체와 2차전지 등 대형주수급 쏠림이 야기한 ‘왜곡된 상승’”이라며 “지난 17일에도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상승 종목(222개)보다 하락종목(672개)이 3배 이상 많은 왜곡 현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연이은 해킹 사고

‘보여주기식 제도’ 피해 키웠다… “보상 등 원칙 세워야”

인증·감독 등 구조적 문제 겹쳐
업계 “기술적·제도적 개편 필요”

국내 통신사 해킹 사고가 잇따르며 보안 체계에 근본적 결함이 드러났다. 코어망과 인증 구간의 취약성, 외주 관리 부실, 탐지·통보 지연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부는 뒤늦게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내놔지만, ‘땀질식 대응’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22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계속 이어진 해킹 사고의 배경에는 코어망·인증 연계 취약, 외주 관리 허점, 탐지·통보 지연, 분절된 감독 체계라는 구조적 문제가 겹쳐 있다. 이 같은 허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홍범식(왼쪽 세번째부터) LGU+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광일 MBK 대표이사,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전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와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해킹·보안 관련 부실 대응으로 집중 추궁

을 받았다.

기업 해킹 대응 체계가 매번 사고 후 땀질식으로 끝나는 이유는 기술이 부

족해서가 아니라는 게 보안업계의 주장이다. 현장의 공통된 진단은 “보안이 ‘보여주기식 제도’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제 보여주기식 관리가 아니라, 구조 자체를 갈아엎을 기술적·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통신사 해킹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홈가입자서버(HSS)·통합데이터관리(UDM) 등 핵심 자산은 폐쇄망 운용과 다중키 분산 저장, 실시간 무결성 검증이 필수다. 관리 계정은 원격 비서명 접속을 차단하고 세션 기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위장 기지국에 대응하기 위해 단말-기지국 간 상호 인증을 기본값으로 하고, 의심 신호 차단과 인증 이상 탐지 기능을 상용망에 도입해야 한다. 통

신사와 결제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연동해 단말 식별정보와 결제 패턴을 교차 검증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최근 해킹의 상당수는 외주 인력 계정을 통한 내부 침입에서 시작됐다. 협력사 계정에는 제로트러스트 원칙과 최소권한 접근 정책을 강제하고, 고객망과 관리망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외주 접속 과정 전 구간의 세션을 녹화·보관하고, 외주업체 보안 인증을 주기적으로 재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도 요구된다. 통신·금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시간 이상징후 공유 지도와 자동 경보 불복을 마련해야 한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요금 감면이나 위약금 면제 등 집단 보상 절차를 법정 기본값으로 두는 게 피해 최소화의 출발점”이라고 전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정부 “공공·민간 통합대응체계 구축… 과징금 등 제재 강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국가안보실 주도 협의체 구성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높아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전반의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간에 실행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연내 중장기

계획인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안보실 주도로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핵심 IT 시스템 보안 점검 ▲소비자 중심 사고 대응체계 구축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산업 육성 ▲범

국가적 협력 강화 등을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공공기관, 금융사, 통신사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 IT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이 즉시 실시된다. 통신사는 해킹 시나리오를 적용한 불시 점검을 받게 되며, 펌웨어 등 소형 기지국은 보안이 미흡할 경우 폐기된다.

보안 인증제도(ISMS·ISMS-P)는 서류심사에서 현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중대한 결함 발견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기업의 보안 부실로 해킹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의무화한다. 개인 정보 유출 과징금 일부는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정부가 기업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을 파악하면 즉시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지연 신고나 재발 방지 미이행 등에 대한 과징금과 징벌적 제재도 강화된다.

공공기관은 정보화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안에 투자하도록 하고, 정보보호 책임관 직급을 실장급으로 격

상한다. 민간기업은 상장사 전체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가 확대되며, CEO의 보안책임 원칙도 법제화된다.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위한 지역 정보보호 지원센터는 10개소에서 16개소로 늘어난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특정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강요하는 관행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다중 인증과 AI 기반 이상탐지 시스템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또 물리적 망분리 중심의 보안 체계를 데이터 중심 보안 체계로 전환하고, 클라우드·AI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김서현 기자

“HBM4 보러 왔어요”… 삼성·SK, 차세대 메모리 주도권 각축

Q 르포

SEDEX2025

삼성 HBM3E·HBM4 나란히 공개
11Gbps 성능 공식 확인 이례적
4나노 공정에 발열 11% 개선

SK 세계 최초 HBM4 양산체제 구축
대역폭 2배·전력효율 40% 향상
AI 서비스 성능 69% 향상 전망

“반도체 학과 학생으로서 HBM4를 꼭 보고 싶었다. 오늘 실물 영접을 한 것만으로 오를 값어치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SEDEX2025(제 27회 반도체대전)에 참석한 서울관악구 소재 대학의 반도체 학과 재학생 윤 모씨는 이같이 말했다.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 실물이 전시돼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부스를 제일 먼저 찾았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주최로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SEDEX2025에 HBM4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HBM4는 내년 엔비디아의 차세대 AI가속기 ‘루빈’에 탑재될 것으로 알려지며 AI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치열해지고 있다.

SEDEX2025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반도체 산업이 나아갈 핵심 전략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내 반도체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주성엔지니어링, 동진세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반도체대전(SEDEX)에서 관람객들이 삼성전자 부스를 관람 중이다.

미켈, 피에스케이, 원익 등 글로벌 반도체 제조·장비 기업들 280곳이 700여 개 부스 규모로 전시를 꾸렸다.

◆**삼성전자, HBME3·HBM4 나란히 공개… 성능 향상 자신감**

삼성전자는 HBM3E와 HBM4를 나란히 선보였다. 한 관람객은 유리 진열장 속 HBM4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연신 사진을 찍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HBM4가 특히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데이터 이동 속도 성능인 11Gbps를 달성했다는 것을 공개하며 제품 경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삼성전자가 이 제품 속도 성능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에 4나노미터(nm·10억분의1m)

기반 파운드리 공정을 HBM4아랫부분의 ‘베이스 다이’ 개발에 활용해 전력 효율을 전작 대비 40% 향상했다고 회사는 밝혔다. 특히 데이터 전송과 열분산에 도움을 주는 범프가 이전세대보다 1.2배 늘어나고 11% 낮은 열 저항을 갖춰 더 나은 발열 성능을 탑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D램, 모바일용 칩과 고화질 이미지 센서, 차세대 외장·내장용 SSD와 보안 솔루션 등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었다. ‘갤럭시Z 플립7’에 전량 탑재된 ‘엑시노스 2500’도 함께 소개됐다.

◆**SK하이닉스, HBM4로 존재감 과시… 미래 첨단 기술 청사진 제시**

SK하이닉스 부스에도 많은 이들이 몰렸다. SK하이닉스는 지난 9월 HBM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반도체대전(SEDEX)에 전시된 SK하이닉스 HBM4.

4 개발을 마무리하고 세계 최초로 양산체제를 구축했다. 회사는 HBM4를 둘러싸고 빛이 퍼지는 연출 효과를 활용해 부스 중심에 배치하며 올해 전시의 주인공임을 강조했다. HBM4를 구성하는 인터포저와 D램 베이스다이를 세로로 쌓은 형식의 조형물도 함께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HBM4는 전작 HBME3 대비 40% 2배 늘어난 2048개의 데이터 전송 통로(I/O)를 적용해 대역폭을 2배로 확대하고 전력 효율은 40% 이상 끌어올렸다. 이 제품을 고객 시스템에 도입 시 AI서비스 성능을 최대 69%까지 향상시킬 수 있어 데이터 병목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동시에 데이터센터 전력 비용도 크게 줄일 것으로 회사는 전망했다. 특히

10Gbps(초당 10기가비트) 이상의 동작 속도를 구현해 HBM4의 JEDEC(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표준 동작 속도인 8Gbps를 크게 뛰어넘었다. 기업용 고성능 슬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eSSD), 서버용 메모리 모듈(DIMM), 프로세싱 인 메모리(PIM) 등 차세대 메모리 제품을 함께 전시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김정희 부회장은 “AI 시대가 반도체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어제의 정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여는 혁신”이라며 “이번 SEDEX 2025는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하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치열한 혁신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차현정·정희준 기자

hyeon@metroseoul.co.kr

R&D 세제, 기업 클수록 불리한 ‘계단식 구조’

대한상의, R&D 세제 지원제도 분석
공제율 격차 OECD 최대 수준
환급제도 부재로 혁신투자 위축

신기술 선점이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에 한국의 연구개발(R&D) 세제 구조는 기업이 커질수록 오히려 불리해지는 계단식 구조로 고착되고 있다. 대기업은 세제 혜택이 좋고, R&D 투자에 따른 직접 환급제도조차 없어 혁신 투자가 위축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OECD이노텍스(INNOTAX) 포털에 등재된 33개국의 ‘R&D 세제 지원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R&D 세제 인센티브 제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제율 차등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개국뿐이었다. 나머지 27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처럼 기업 규모와 무관한 단일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차등제도를 둔 6개국 중에서도 한국의 공제율 격차는 가장 컸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 중소기업 25%로 23%포인트 차이가 난다.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경우에도 10%포인트의 격차가 존재한다. R&D 설비투자 세액공

제 역시 대기업 1%, 중소기업 10%로 9~10%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일본은 대기업의 R&D 지출 증가율에 따라 1~14%, 중소기업은 12~17% 수준으로 차등 폭이 3~11%포인트에 그친다. 일부 구간에서는 대기업이 오히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기도 한다. 호주 역시 R&D 투자 규모가 일정 비율(전체의 2%)을 넘는 대기업에 16.5%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많이 투자할수록 더 주는’ 구조다.

반면 한국은 공제율 격차가 크고, 환급제도도 없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부산 남구 BNK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금융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방에 年 120조 정책금융 공급한다”

금융위,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정책금융기관의 지역공급액 비중을 현 95조원에서 2028년까지 120조원으로 확대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우대 금융 간담회’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지방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우대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의 지역공급액 비중을 올해 약 40% 수준에서 2028년 45%로 상향한다. 이 경우 지방은 현재보다 25조원 이상 증가한 연간 120조원 이상을 정책자금에 공급받을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지역별 상황에 맞춰 ▲지역이전기업 ▲사업구조 고도화 ▲

지역산단 특화 우대자금을 더 낮은 금리, 더 높은 한도로 공급한다.

생산적 금융의 상징인 국민성장펀드는 총 150조원의 조성자금 중 60조원을 지역에 지원한다.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금융권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은 예대율 규제 수준을 낮춘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권역별 거점 본부를 강화해 본부에 올라가지 않고도 중요한 대출과 투자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각 지역의 산업적 역량이 우리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금융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며 “관계부처, 기관 및 지자체가 협업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우대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고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연금저축·IRP 병행 시, 세제 혜택 극대화

>> 1면 ‘공적연금 의존 92%…’서 계속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으로 선택하는 것도 퇴직연금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 퇴직할 때 퇴직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과세이연 효과와 함께 자산 유지 기간이 길어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시금 수령자는 3년내

대부분 소진하며, 연금화 선택자의 노후 소득 안정성이 평균 2배 이상 높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혜택**

개인연금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선 ‘꾸준함’이 필요하다. 소액이라도 자동이체로 장기 납입을 유지하고, 수익률이 높은 펀드형 상품이나 세제혜택이 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연금저축(600만

원), IRP(300만원)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연금저축신탁’과 보험사 중심 ‘연금저축보험’, 증권사 중심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55세 이후부터 연금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절감하고,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도 이연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모임통장? 혜택통장? 혜택이 모이는 새로운 모임통장

손쉬운 회비 관리는 물론,
모임비가 늘어나는 금리 혜택에
금융 수수료 면제까지
선물 같은 혜택을 모았다



모임주만 가입해도 OK
모임원 간편 초대



모임 관리가 편해지는
회비 납부 현황판



언제 어디서 모여도
금융 수수료 면제
[* 전자금융 수수료 및 CD/ATM 현금 인출 수수료]



모임비가 늘어나는
최대 2.5% 금리
[* 연/세전, 월별 잔액 3백만원까지 적용]

[NH모임통장 유의사항] ■ 가입대상: 개인 ■ 가입방법: 영업점, 비대면(NH농협뱅크) ■ 기본이자율: 0.1%(25.09.1 기준, 연/세전) ■ 우대이자율: 최고 2.4%(기본이자율 포함 시 최고 2.5% 연/세전, 월별 잔액 3백만원까지 적용) ① NH모임통장서비스에 모임계좌 등록 및 해당 모임에 모임원 2명 이상 유지: 1.9%p ② ①번 조건 충족 및 결산일이 포함된 월의 전월·전전월 2개월간 해당 계좌에 2건 이상 입금 건이 있는 경우: 0.5%p ■ 이자 지급 시기: 매월의 이자를 계산하여 3.6.9.12월 넷째 토요일에 계산 후 다음날 지급 ■ 우대서비스: 전자금융 수수료(인터넷/스마트뱅킹) 및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NH농협은행 CD/ATM 현금 인출 수수료 면제, 타행 CD/ATM 현금 인출 수수료 월 5회 면제 (농·축협 기기 제외) * 가입기간 동안 이 통장으로 거래 시 매월 조건 없이 제공 ■ 유의사항: 이 상품을 NH모임통장서비스 모임통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예금주(모임주) 본인 명의 계좌이므로 발생한 이자소득 및 의무사항은 모임주에게 귀속됩니다. ■ 이 예금은 예금지보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출금 및 이체 등 잔액변동이 불가합니다. ■ 금융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른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이벤트 및 상품내용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61-3000)로 문의 바랍니다. ■ 은행연합회 심의필 제 2025-04803호 (2025.09.08~2026.09.07)

“캄보디아, 범죄수익이 GDP 절반… 韓 가담자 약 2000명”

〈약 125억 달러〉

2025 국감

국정원, 범죄 실태·대응계획 설명
자국민 스캠범죄자 재가담 가능성
유관기관과 출국금지 등 대응책 마련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사건 주범
강남학원 마약사건 총책으로 확인

국가정보원이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스캠 범죄 조직의 수익이 캄보디아 GDP(국내총생산)의 절반 수준이고, 한국인 범죄 가담자가 1000~20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

박선원 정보위 여당 간사와 이성권 야당 간사는 이날 정보위 국정감사를 후 기 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파악한 캄보디아 범죄 조직 실태와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박선원 여당 간사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은 카지노 자금 세탁에 머무르다가 코로나19 이후 국경이 폐쇄되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다국적 범죄조직이 침투해서 스캠 범죄로 진화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단지는 프놈펜(수도), 시아누크빌을 포함해 총 50여 곳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고 범죄 종사자들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비정부 무장 단체가 장악한 지역도 있고 경제특구에도 산재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에서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국제공조도 상당한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범죄조직이 캄보디아 GDP의 절반 수준인 약 125억 달러에 해당하는 범죄 수익을 챙기고 있을만큼 비중이 크다”며 “캄보디아가 관련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국민 중에서

도 범죄 가담에 따른 처벌을 의식해 신고를 꺼리는 상황이라서 정확한 우리 국민의 범죄 연류 및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고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박 간사는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한 우리 국민이 최소 1000명에서 2000명에 이를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들어 있는 음료를 학생에게 쥐어 이를 빌미로 부

모에게 금품을 갈취한 ‘강남 학원과 마약 사건’의 총책이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이란 보고도 있었다.

이성권 야당 간사는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3일째에 국정원은 정보를 최초 입수하고 정보역량을 총가동해서 8일 만에 주범을 확정했고 현재 추적 중에 있다”며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체포를 위해 추가 전담반을 파병하는 등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더욱 우려되는 점은 현지에서 구조된 자국민 스캠 범죄자가 귀국 후 다시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인접국으로 출국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해 국내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외교부는 법무부 출국 금지, 여권 무효화, 인터폴 적색 수배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며 “스캠 범죄 피해 확산 방지 및 국민 불안감 조기 해소를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아주반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주캄보디아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 주태국대사관, 주라오스대사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외교부의 자국민 피해에 대한 안이한 대응을 질책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주캄보디아대사관 경찰 영사가 120억원 대 스캠 범죄를 일으킨 한국인 주범이 여권 연장을 위해 대사관을 찾았음에도 자수만 권유하고 돌려보낸 것을 두고 “자수할리가 있나”라며 아연실색했다.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당시 경찰영사의 판단은 인터폴 적색 수배는 즉각 체포 성격은 아니라고 봤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사람이 풀려나서 잠적해서 그 이후에 범죄를 저지르면 또 피해자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 대사대리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주범은 캄보디아 경찰 기관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 가담 한국인이 피해자성과 가해자성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 송환도 ‘그게 구출이나’, ‘범죄자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한편으론 감금되면서 죽음에 이르는 피해자도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송환해서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가해자성이 크든 적든 본국에 송환해서 필요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대사관이 안이했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민의힘 “미분양 아파트 지역, 신혼부부·청년 찾아 목소리 듣겠다”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 첫 회의
10·15 부동산 대책 공세, 철회 요구
실수요자·민간 중심 공급대책 마련

국민의힘은 22일 장동혁 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열고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아파트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고민이 많은 현장을 직접 찾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등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담은 10·15 대책을 두고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번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직접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부위원장장은 김도읍 정책위의장, 위원



은 조은희·강민국·김은혜·조정훈 재선 국회의원과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로 구성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을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70%에서 40%로 높이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

회에서 열린 특위 1차 회의에서 “제가 특위에 위원장을 직접 맡은 것은 이번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처음인 것 같다. 아마도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자주 없을 것 같다”며 “그만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청년과 서민의 삶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인지를 잘 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좌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오늘부터 우리 특위는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

민의 주거권 회복을 위한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의실 책상 위에 놓인 통계와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한숨이 짙게 밴 현장에서 그 답을 찾겠다”며 “재개발 재건축 현장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인 지역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절망이 가득한 곳으로 직접 달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그리고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서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 고충센터를 만들겠다”며 “여당보다 더 유능한 야당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인 정당으로서 혁명적 수준의 공급 확대와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고 내 집 마련에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10·15 대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며 “그리고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 중심 공급 대책 마련에 집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은 막고 대출은 조였는데 청년과 신혼부부가 무슨 수로 내 집을 마련하냐”라며 “민주당은 실패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더 이상 포장하지 마라”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진성준 “집값 잡기 위해 ‘보유세 개편’ 용기 내야”

강력한 금융·수요관리 대책과 수반
‘똥똥한 한 채’ 집중현상 문제 손봐야
민주당 부동산TF, 세제개편 논의 없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22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차제에 이렇게 강력한 금융 대책 또는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놓을 때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은 대출 규제책 위주로 발표됐었다. 진 의원은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도 검토했으면) 오히려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

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정부적 부담이 있는 사안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진 의원은 “그래서 당과 정부는 조금 신중한 것 같다. 선거상의 유희리의 문제를 어떻게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 특히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것이 부동산과 아파트값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선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의 생각과 달리 당 부동산TF 단장을 맡은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보유세 강화 등 세제개편을 현 시점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은 “수요, 공급, 보유, 양도 이

런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이룰데면 완성된 형태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며 “수요와 공급에만 치중하고 보유나 양도의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고민이 없다. 그만큼 사각지대로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엔 똥똥한 한 채라고 해서 여러 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돈이 되는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세제상으로도 보호하는 조치들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세금 부담도 없어서 더더욱 똥똥한 한 채로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손 봐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집값

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력한 금융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세제조치, 특히 보유세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똥똥한 한 채’로 돈이 몰리는 일이 없도록 과세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주택안정화TF’를 중심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에 모든 힘을 모으겠다”며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다. 누구나 ‘영끌’하지 않아도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금융의 모든 순간

헤아림

헤아림으로 더 특별한 일상

오늘이 특별했다면
그건 당신 먼저 헤아리는
NH농협손해보험 때문일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걸 끝없이 헤아리는
꼭 필요한 보험이니까

헤아림이 함께하는
당신의 오늘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원화 스테이블코인 연내 도입… EU식 규율로 막판 조율

당국, 올해 말까지 법제화 추진
이자지급 금지·발행요건 등
유럽연합 ‘MiCA’와 유사 방식
업계 “기본법 조속 제정 필요”

금융당국이 올해 말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5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과 발행주체의 이자지급 금지 등 구체적인 발행 요건도 제시했다. 유럽연합의 ‘MiCA(가상자산규제기본법·미카)’와 유사한 방식이다.

금융당국이 심사기준 마련 등 입법 이후 절차들을 미리 준비해 실제 발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앞당기겠다는 방침도 밝히면서, 지난 9월 이후 정체됐던 관련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까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제시하고,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와 상품의 규제를 명확히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부처와의 논의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고, 연내 법제화가 가능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관련 주요 요건으로 ‘글로벌 정합성’을 강조하면서 발행 주체의 이자지급 금지’를 공식화했다. 같은 날 국감장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5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 및 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금

융당국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에서 국제적인 기준은 유럽연합(EU)의 ‘MiCA’와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이다. 두 법안 모두 발행주체의 이자지급을 금지하는 한편, 투자자의 요청 시 즉시 현금으로 반환이 가능한 준비금을 단기 국제·은행 예금 등 신뢰성 높은 자산으로 갖추도록 규율하고 있다. 특히 MiCA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법안과 유사하게 가상자산 사업자와 개별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괄한다.

금융당국이 연내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정체됐던 관련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개최한 가상자산위원회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6월 출범한 현 정부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핵심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국회에서도 여당 주도로 다수의 관련 법안이 입안됐다. 그러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정책을 관할하는 금융위와 통화정책을 관할하는 한국은행 간 견해차가 불거졌고, 9월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 논의도 나오면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논의는 정체됐다.

금융위와 대립각을 세웠던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통화정책 효과 저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은행권 주도로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지속 중이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8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EU의 MiCA와 동등한 규제 수준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 만큼, 규제 방향성을 놓고는 금융당국과 한은의 입장이 일치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22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정책적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라면서 “다만 제도적인 안정을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고, 해당 내용을 포함해 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보험금청구권 신탁, 저축성·치매·요양까지 넓혀야”

적용 범위 ‘일반사망’에 묶여
생전 생활·요양비 관리에 빈틈

지난해 도입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사망보험금 상속을 체계화했으나 적용 범위가 ‘일반사망’에 묶여 생전의 생활·요양비 관리에 빈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을 저축성·치매·장기요양 보험까지 넓히고 요양 특약과 지출 규칙을 신탁과 연동해 ‘살아 있는 동안의 자금관리’로 정착시키자는 제언이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12일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망보험금 상속 관리의 틀을 열었다.

다만 신탁 허용 범위는 ‘일반사망’에 한정되고 3000만원 이상·보험계약대출 불가·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 동일·수익자 직계존비속·배우자 제한 등 촘촘한 요건이 걸려 있다.

이에 따라 신탁이 노년의 생활·요양비를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생전 자금관리 장치’가 되려면, 저축성(연금)과 보장



Chat GPT가 생성한 보험금청구권 신탁 이미지. /Chat GPT

성(치매·장기요양) 보험까지 대상을 넓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령화의 생활 단면을 보면 ‘신탁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분명해진다. 2023년 1인 가구는 783만 가구(전체의 35.5%), 이 중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14만 가구(9.7%)다. 2052년에는 각각 962만 가구(41.3%), 496만 가구(21.3%)로 더 증가할 전망이다.

치매 환자도 2025년에 97만명(유병률

9.17%)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치매 환자 보유 자산은 2023년 154조원(GDP의 6.4%)에서 2050년 488조원(15.6%)으로 커질 전망이다. 삶의 후반부에 꾸준히 지출돼야 하는 ‘목적 자금’을 사전에 규칙화해 관리·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이유다.

시장 지표는 더 냉정하다. 국내 신탁 수탁고는 2024년 말 1376조원이지만 ‘관리형’의 핵심인 종합재산신탁 비중은 고작 0.05%다. 경제 규모 대비 신탁 수탁고 비율도 2010년 26.9%에서 2024년 54.0%로 높아졌지만 미국 119.8%·일본 269.6%와 비교하면 여전히 격차가 크다.

특히 업권별로는 은행이 47%를 점유하고 보험사는 2% 수준(중 퇴직연금 신탁 20조원 포함)에 불과해 존재감이 미미하다. ‘생전 자산·현금흐름 관리’라는 과제가 한국 신탁시장에서는 아직 본령을 발휘하지 못한 셈이다.

제도도 생활의 수요를 따라가기엔 장벽이 높다. 현재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일반사망보험금만 가능하다. 신탁 설정 후라도 보험계약대출이 발생하면 신탁계약이 무효가 된다. 저축성(연금) 혹은

치매·장기요양 보험금과 같이 ‘살아 있는 동안’ 꾸준히 지급돼야 하는 보험금은 신탁으로 미리 설계할 수 없다.

따라서 판단능력 저하, 보호자 부재 등 상황에서도 생활·요양비를 목적대로 집행하는 체계가 약하다. 또한 우리나라 고령자 자산이 집(부동산)에 편중되고 금융자산 비중이 낮은 점도 생전 신탁 활용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된다.

업계에서는 개선책으로 ▲신탁 대상의 저축성·치매·장기요양 보험 확대 ▲치매·요양 특약을 엮은 종신·연금 등 ‘지급 확정형’ 상품을 만들어 신탁과 연동 ▲사망보험금 역모기지 등 ‘계획된 보험 계약대출’ 허용 ▲장례·돌봄·법률·세무 등 부가서비스 결합 ▲설계사 채널을 통한 홍보·소비자 교육 강화를 꼽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치매 보장과 장기요양보장을 추가해 금전채권 지급의 확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개발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들은 요양 서비스 제공과 연계해 ‘통합관리형 치매신탁’과 유사한 형태의 신탁상품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55세 이상 고령층, 사망보험금 생전에 연금으로 받는다

종신보험 보험료 납입 완료자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노후 지원

오는 30일부터 종신보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55세 이상 고령층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생명보험회사와 함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

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망보험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미리 받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 가입자로 55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생명보험사는 우선 23일 기존 고객중 사망보험 유동화가 가능한 소비자를 대

상으로 안내 문자 카카오톡을 발송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약 75.9만 건으로 35조4000억원 규모다.

사망보험 유동화는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대면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품과 제도등을 지속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상품의 서비스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테스트 베드도 활용한다. 서비스형 상품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토탈·저해지 연금보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삼성물산 래미안 원펜타스 IFLA APR 조경어워즈 최우수상 본상 쾌거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세계조경가협회(IFLA)가 주관하는 2025 IFLA 아시아·태평양 지역(APR) 조경(LA) 어워즈에서 최우수상과 본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서울시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와 부산광역시 동래구 래미안 포레스티지 조경을 출품해 주거(Residential)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Award of Excellence)과 본상(Honourable Mention)을 수상했다.

세계조경가협회는 1948년 창설돼 현재 80여개 회원국을 보유한 전세계 조경가들의 대표기관이다. 세계조경가협회상은 조경 분야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원펜타스에 입주민이 쾌적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조경 설계를 적용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삼성물산 김명석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이번 수상으로 총 15회의 세계조경가협회상을 수상하게 됐으며, 이는 래미안 조경의 진가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래미안 브랜드 파워와 주거의 품격을 한층 높여 입주민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t@

GS건설 혁신 아이디어 허브로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

GS건설은 협력사 등 외부의 신기술 제안과 임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플랫폼 ‘혁신 아이디어 허브’를 신설해 품질, 안전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혁신 아이디어 허브 플랫폼은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의 솔루션을 제안을 받고, 내부 임직원들의 안전확보, 품질향상 등 폭넓은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는 두 개의 창구로 운영된다.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기술과 아이디어는 관련 실무부서의 평가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 받고, 유관 부서의 협업 하에 현장 실증과정을 통해 현장에 적용가능한 기술로 탈바꿈한다.

특히, 보유한 신기술을 적용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사업적 인프라나 지원역량이 부족한 외부 기업도 이번 신설된 플랫폼을 통해 우수제안사로 선정되면, GS건설의 현장 실증 지원과 상용화 기회를 제공받는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소정의 포상과 함께 특허출원 지원, 입찰 참여 기회 부여 등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파트너사와 기술 동반성장 체계를 갖추게 된다.

/안상미 기자

현대차·기아, ‘글로벌 챌린저’ 선언 창의 아이디어로 미래 모빌리티 개척

‘아이디어 페스티벌’ 개최

연구원 창의력, 미래 기술로 이어
사내 혁신경연서 모빌리티 새길 제시
6개 팀 아이디어, 실물로 구현 성공
R&D 현장서 자율 혁신문화 확산

‘연구원들이 창의 역량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현대자동차·기아가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대차·기아는 22일 남양연구소(경기 화성시 남양읍 소재)에서 임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물까지 제작해 발표하는 ‘2025 아이디어 페스티벌’ 본선 경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현대차·기아 R&D본부·AVP본부가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전통 있는 행사로, 임직원들의 연구개발 의지를 북돋우고, 창의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해왔다.

2025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현대차·기아가 전세계 무대에서 쌓은 입지를 지속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글로벌 챌린저’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현대차·기아는 사전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6개 팀에게 제작비와 실물 제작 공간 등을 지원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팀은 약 7개월 동안 자신의 아이디어



‘액티브 옴니 내비게이션 트랜스포터’ 시연 모습.

를 실물로 구현해 낼 수 있었다.

이날 본선에서는 6개 팀이 각각 발표와 시연을 진행하며 고객의 모빌리티 경험을 한층 확장할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차량 수납 공간 잠금 시스템 ‘디지털 로그 락 시스템(Digi-log Lock System)’ ▲트레일러 견인 성능 향상 시스템 ‘트레일러 토잉 프리 컨디셔닝(Trailer Towing Pre-Conditioning)’ ▲안전 벨트를 활용한 차량 제어 시스템 ‘디벨트(dBelt)’ ▲조향 없이 전 방향 주행이 가능한 모빌리티 ‘액티브 옴니 내비게이션 트랜스포터(Active omni Navigation Transporter)’ ▲발달 장애인의 불안증세 해소를 위한 탈부착 패드 ‘S.B.S(Seat&Belt with Stability)’ ▲차량 번호판 기반 차주 연락 서비스 ‘스냅 플레이트’가 경쟁을 펼쳤다.

이번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작품 구현성과 독창성, 기술 적합성, 고객 지향성

을 평가하고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그 결과 액티브 옴니 내비게이션 트랜스포터를 선보인 ‘ANT 랩’팀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2026 CES 견학 기회가 주어졌다.

최우수상은 디지털 로그 락 시스템과 트레일러 토잉 프리 컨디셔닝을 선보인 ‘FMV’팀과 ‘수퍼트레일러토잉’팀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들 팀은 각각 상금 500만원과 HMGICS(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견학 기회를 얻었다.

현대차·기아 연구개발인사실장 백정욱 상무는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현대차·기아 임직원들이 혁신의 씨앗을 싹틔우는 장”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원들이 창의 역량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 “조명부터 가전까지 한 번에 제어”

생성형 AI 탑재한 ‘씽큐 온’ 공개
타사 기기까지 연결하는 AI 허브

LG전자가 조명부터 가전까지 집안의 모든 제품을 제어하는 인공지능(AI) 홈 허브 ‘LG 씽큐 온’을 본격 출시한다. 특히 삼성전자나 사오미, 화웨이 등 다른 브랜드의 기기도 통합 연결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고 있다.

LG전자는 22일 온라인브랜드샵(LG E.COM)을 시작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LG 씽큐 온과 ‘LG IoT 디바이스’를 국내에 순차 판매한다고 밝혔다.

LG 씽큐 온은 고객과의 일상 대화를 통해 맥락을 이해하고, 생활 패턴을 학습·예측한다. 집 안 가전과 IoT 기기를 24시간 연결 상태로 유지하며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LG AI 홈의 핵심 기기다. 또 생성형 AI가 탑재돼 고객과 일상 언어로 대화할 수 있다. 과거의 음성인식 스피커가 질문에 단답형의 단순한 답과 정해진 명령을 이행하는 수준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LG 씽큐 온의 최대 장점은 폭넓은 연결성이다. 개방형 스마트홈 연동 표준인 매터 인증을 받은 LG 씽큐 온은 와이파이, 쓰레드 등 다양한 연결 방식을 지원해 다양한 국내외 가전 및 IoT 기기를



LG전자가 AI 홈 허브 ‘LG 씽큐 온(ThinQ ON)’을 국내 시장에 본격 출시한다. 고객이 일상 언어로 대화하면 맥락과 공간을 이해해 연동된 가전과 IoT 기기를 제어하고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LG 씽큐 온’을 체험하는 모습.

연결할 수 있다. 또 LG 씽큐 앱의 통합 허브 앱스토어 ‘씽큐 플레이’를 활용하면 씽큐 온과 연동되는 ▲캘린더 ▲택시 예약 ▲음악 스트리밍 ▲날씨 등 약 800개의 다양한 앱 서비스와 다양한 제조사의 스마트 IoT 기기도 활용할 수 있다.

LG 씽큐 온의 출하가는 24만 6000원, LG IoT 디바이스는 4만~51만 3000원이다. IoT 기기 연결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도 씽큐 온 구매 시 전문가가 설치를 선택하면 전문 설치 엔지니어가 방문해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AI 홈을 구성해 준다. 또 집 안의 AI 가전, IoT 기기 등과 씽큐 온의 연결은 물론, 음성/원격 제어 및 가전 업그레이드하는 법까지 알기 쉽게 소개한다. /양성운 기자

HD현대미포, ‘LCO₂ 운반선’ 수주경쟁력 확대

샌드박스 특례로 효율성 제고

HD현대미포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액화이산화탄소(LCO₂) 운반선 수주경쟁력 확대에 나선다.

HD현대미포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 신청한 ‘탱크로리를 활용한 선박으로의 액화이산화탄소 충전’ 안전이 산업통상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다음 달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고압가스 충전·저장 설비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번 실험특례를 통해 탱크로리를 활용한 화물창 충전이 예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시운전 시 별도 부지에 충전 터미널을 설치하고, 선박을 해당 터

미널로 이동시켜야 하는 소요가 사라져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운용 효율 향상에 따른 납기 신뢰성 증대가 기대된다.

실제로 HD현대미포는 현재 건조 중인 2만 2000㎥급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4척의 시운전 시 조선소 안벽에서 유연호스와 자체 제작한 이동식 매니폴드(선박 한 척과 탱크로리 여러 대를 연결해 동시에 충전하는 장치)를 활용, 선박 내 화물창에 액화이산화탄소를 충전할 계획이다.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의 시장 전망도 밝은 편이다. 노르웨이선급(DNV)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연간 포집되는 이산화탄소량은 오는 2030년 2억 1천만 톤에서 2050년 13억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현대로템

철도 사이버보안 국제인증 첫 획득

현대로템이 철도분야 글로벌 인증을 잇따라 획득하며 사업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현대로템은 산업용 사이버보안 국제표준인 IEC 62443 인증을 국내 철도업계 최초로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한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국제표준인 IEC 62443은 산업 현장의 사이버 범죄와 IT 시스템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이버 보안 수준을 평가하는 국제 표준이다.

IEC 62443은 글로벌 철도차량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보안 기준으로 인증 여부가 사업 수주의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이다. 현대로템은 철도차량의 핵심 시스템인 열차제어모니터링시스템과 통합방송시스템, 추진장치, 보조전원장치 등에 해당 인증을 우선 적용했으며 향후 철도 인프라 보안 전반에 적용한다.

이번 인증을 통해 현대로템은 철도차량의 제어 및 운영 시스템이 국제 수준의 사이버보안 요건을 충족했음을 공식 인정받았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정유사, 실적 회복 기대감 커져 정제마진 급등에 단기 호조세

유가 변수에 지속성은 불투명
공급 축소로 수익성 개선 기대

국내 정유사들이 정제마진 급등에 힘입어 하반기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흐름과 공급 축소 상황에 따라 상승 국면이 얼마나 지속될지가 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배럴당 13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상반기 3~6달러 수준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급등한 수치로, 일반적으로 정제마진이 배럴당 4~5달러만 넘어도 손익분기점을 웃도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제마진은 석유제품 판매가격에서 원유 구매비 등을 제외한 값으로, 정유사의 수익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다.

정제마진이 가파르게 반등하자 국내 정유사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에프엔가이드는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이 3분기에 각각 2018억원, 252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1.2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상장사인 GS칼텍스와 HD현대

오일뱅크 역시 정유 부문에서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이클의 핵심 변수는 국제유가 흐름과 글로벌 공급 축소다. 유럽과 미국에서 노후 정유 설비 폐쇄가 확대되는 가운데 러시아 정유시설이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차질을 빚으며 공급 타이트 현상이 강화됐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제재가 강화되면서 원유 시장 내 지역별 수급 왜곡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중국·인도·터키 등 러시아산 원유 대체 조달국에 대한 2차 제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중동산 원유 수요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동산 원유 수요가 확대되면 오펙플러스(OPEC+)가 감산을 조기에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감산이 완화돼 원유 공급이 늘어나면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인해 아시아 공식판매가격(OSP)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제마진의 흐름은 변동성이 큰 만큼 언제까지 상승세가 이어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단기 실적 개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중공업, XR 기술로 스마트조선소 가속

삼성전자와 기술개발 협력 MOU

삼성중공업이 확장현실(XR)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22일 삼성전자와 ‘XR 기술개발 협력 MOU’를 체결하고, 같은 날 열린 삼성전자 ‘갤럭시 XR’ 쇼케이스 행사에서 XR 기술이 선박 검사 과정에 적용되는 모습을 처음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갤럭시 XR’을 착용한 작업자가 패스스루(pass-through) 및 핸드 트래킹(hand tracking) 기술을 이용해 3차원으로 구현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엔진을 가상 공

간에서 검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패스스루는 현실 장면을 그대로 시야에 투영해 가상과 실재를 동시에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며, 핸드 트래킹은 손동작만으로 XR 환경을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이번 협력은 삼성중공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해 온 가상현실(VR) 솔루션을 ‘갤럭시 XR’에 접목해 사전 검증한 것이 계기가 됐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전자는 XR 사업 협력을 통해 ▲신제품 설계 및 개발 ▲공동 브랜딩을 통한 홍보 ▲차세대 사업분야 발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유혜은 기자

대동모빌리티, 골프카트 고급화 주도… 日 등 신시장 공략

일반·리무진카트 국내시장 안착
내년 역대 최대 판매목표 설정
연내 日 출시… 美 진출 계획도

대동그룹 계열 대동모빌리티가 리무진카트로 국내 골프 카트시장의 고급화를 주도하며 시장 공략을 더욱 가속화한다. 특히 올해 말에는 일본향 맞춤형 골프카트를 추가 출시해 야마하(YAMAHA) 등이 주도하고 있는 일본 본토 시장에서 활동반경을 더욱 넓혀나갈 계획이다.

22일 대동모빌리티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7월 리무진 골프카트를 처음 선보인 이후 올해 4월에는 성능을 더욱 개선한 신형 모델을 추가로 출시했다. 신형



리무진 골프카트.

/대동모빌리티

리무진 골프카트는 현재까지 누적으로 100대 이상을 판매하며 안착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있는

530여개 골프장은 약 4만3000대의 골프카트(일반카트 기준)를 운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규 교체 등으로 인한 연간

시장 규모는 3000대 가량에 이른다.

고급 승용차 1대 가격과 맞먹는 리무진카트의 국내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50대 수준이다.

대동모빌리티 모빌리티사업본부 문준호 본부장(상무)은 “국내 일반 카트시장의 경우 대동모빌리티와 야마하, 에이프로가 약 90%의 점유율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새로 출시한 리무진카트는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동모빌리티는 내년에만 국내에서 1100대의 판매 목표(일반+리무진)를 세웠다. ‘연 1000대 이상 판매’는 대동모빌리티가 관련 사업을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 목표치다.

글로벌 시장 진출도 본격화한다. 특히

골프장만 약 2500개로 글로벌 3위인 일본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대동모빌리티 최근영 사업부문장은 “지난 7월부터 일본 주요 골프장 10곳 이상에 제품을 공급하며 현지 반응을 살피고 있다”면서 “11월에는 현지 맞춤형 골프카트를 정식으로 출시한다. 해당 모델은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전자유도 주행을 지원하는 범용 센서를 탑재했고 내장형 에어컨, 광폭 타이어 등 현지화 사양도 다양하게 반영했다”고 전했다. 일본에선 2030년까지 연간 1000대 판매를 목표하고 있다.

대동모빌리티는 장기적으로는 골프카트 수요만 연간 약 35만대에 달하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이동채 “친환경 이차전지 선도기업 도약”

〈에코프로 창업주〉

에코프로 창립 27주년 기념식

도전정신 바탕 확장 비전 제시
이 창업주 “혁신의 역사 만들 것”

에코프로가 창립 27주년을 맞아 창업 초기의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확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는 22일 충북 오창 본사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지난 27년이 ‘도전과 개척의 역사’였다면 앞으로의 27년은 ‘혁신과 글로벌 리더십의 역사’가 될 것”이라며 “세계가 인정하는 친환경 이차전지 선도기업으로 도약하자”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솔라웨시섬 I MIP(모로왈리 산업단지) 내 제련소 투자와 헝가리 양극재 공장 가동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QMB·메이밍·ESG·그린에코니켈 등 4개 제련소에 약 7000억원을 투자하며 니켈 중간재(MHP) 조달 능력을 확보했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가 창립 27주년을 맞아 충북 오창 본사에서 열린 창립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발표하고 있다.

/에코프로

고, 제련소 자회사 편입 등을 통해 연간 1800억원 수준의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도네시아 IGIP(인터내셔널 그린 산업단지)에서는 PT 발레 인도네시아 등과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에코프로비엠이 헝가리 데브레첸에 구축한 유럽 최초 한국계 양극재 공장은 시험 가동에 돌입했다.

이 창업주는 “서울 서초동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한 명의 직원과 시작한 에

코프로가 이제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도전의 에너지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을 계기로 환경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신하고 1998년 에코프로를 설립했다. 주차장 컨테이너를 연구실로 활용하며 부직포와 접착제를 이용한 케미컬필터 실험을 반복하는 등 사업 초기의 ‘무모한 도전’은 나노카본 탈취제 상용화, 케미컬필터·온실가스 저감장치 국산화 성과로 이어졌다. 2004년 제일모직과 이차전지용 양극소재 개발에 참여하며 이차전지 산업에 본격 진입했고 2013년 일본 소니에 양극재를 공급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 창업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은 우리만의 기술력 확보”라며 초격차 기술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원가 경쟁력을 가져야만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고려아연, 호주 BESS·태양광 개발… ‘트로이카 드라이브’ 탄력

최윤범號 신성장 동력 본궤도

최윤범 회장(사진)이 추구해 온 신성장 동력 ‘트로이카 드라이브(신재생에너지·이차전지소재·자원순환)’ 프로젝트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인 아크에너지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에너지저장 시스템(BESS)과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의 개발 계획 승인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고려아연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핵심축을 담당할 전망이다. 아크에너지가 구축하는 BESS는 리튬인산철(LFP) 기반으로 전력 용량 275MW(메가와트) 규모다. 8시간 동안 최대 2200MWh(메가와트시)의 에너지를 충·방전할 수 있다. 시설을 본격 가동하



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 거주하는 약 17만5000가구에 매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BESS와 함께 200MW급 태양광 발전소도 건설한다. 이 발전소를 가동하면 연간 37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회사는 기대했다.

특히 고려아연은 건설과 운영뿐 아니라 소유권까지 갖는 방식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해당 프로젝트의 전체 투자비 약 11억 호주 달러(약 1조원) 가운데 52%를 구성하는 핵심 자재인 배터리는 한화에너지가 공급한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 장기 에너지 서비스 계약의 최종 사업자로 아크에너지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아크에너지는 시설 운영을 시작한 시점부터 14년간 주정부 지정 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보조 서비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최주원 아크에너지 대표는 “리치몬드밸리 프로젝트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주정부의 심사 과정 전반에서 의견을 제시해준 지역사회 구성원을 비롯해 아크에너지가 뜻깊은 이정표에 도달하도록 지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리치몬드밸리 프로젝트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란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한국과 호주 양국 민관이 협력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LS전선, 차세대 해저 원유 이송기술 개발

딥오션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 협력

LS전선이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차세대 해저 원유 이송 기술 개발에 나선다.

LS전선은 노르웨이의 딥오션(Deep Ocean), 에퀴노르(Equinor), 아커BP(Aker BP), 프랑스의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 등과 함께 ‘전기 가열식 해저파이프라인(FlowHeat)’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술은 기존 외부 열선 방식이 아닌, 파이프라인 내부에 히팅 케이블(열선)을 삽입해 바닷속 저온에서도 원유가 응고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심해유전 개발의 새로운 표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LS전선은 이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히팅 케이블을 개발해 오는 2028년부터 단독으로 양산, 공급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극저온과 고수압 등 극한 해양환경

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실증 시험을 통해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케이블 삽입식은 설치가 단순하고 효율이 높아 비용을 약 35% 절감하고 탄소 배출을 30% 줄이고 시공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최대 수심 3000m, 길이 30km 구간까지 설치가 가능하고, 소형 무인잠수정(ROV)을 활용해 케이블 구축이 가능하다.

해양 엔지니어링 기업 딥오션이 총괄을 맡고, 에퀴노르·아커BP·토탈에너지스가 실증 파트너로 참여해 북해 등 심해 유전 현장에서 기술 검증을 진행한다.

LS전선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LS전선의 장거리 케이블 기술력과 글로벌 공급망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며 “전력·통신 중심의 사업을 가스·오일 분야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KT, UAM 실증사업자 자격 획득

〈도심항공교통〉

‘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실증

KT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자격 부여로 KT는 UAM 상용화 추진을 위한 핵심 사업자로 공식 인정받게 됐다.

KT는 지난해 전남 고흥에서 열린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에서 통합 운용성과 비행 안전성, 관제 시스템 연동 등 핵심 기술을 검증했다. 이후 UAM 특별법이 요구하는 장비와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운영 역량을 인정받아 실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

KT는 이번 자격을 기반으로 10월 말부터 인천 계양~청라를 잇는 아라뱃길 구간에서 ‘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실증을 진행한다.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등과 함께 ‘K-UAM 원팀’으로 참여한다.

이번 실증에서는 5G 항공망을 기반으로 한 운용 시스템의 통합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통신 장애, GPS 신호 불안정, 기상 악화, 기체 이상 등 다양한 돌발 상황을 가정해, 교통관리체계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를 시험한다. 또 기존 음성 기반 비행허가 절차를 자동화된 데이터 통신 방식으로 전환해 고밀도 운항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 운용 체계를 실증한다.

또한 KT는 5G 항공망 기반 초정밀측위기술(RTK-GNSS)을 기존 항공감시체계(ADS-B, MLAT)와 연계해 비행력 비행체나 GPS 두절 상황에서도 저고도 공역을 안정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시정보, 기상, 비행계획 등 운항 데이터를 관계 기관과 실시간 공유하는 통합 정보교환 시스템도 함께 시험한다.

KT는 이번 실증을 통해 5G 기반 항공망 기술과 교통관리 시스템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향후 UAM 상용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G 그랜드침대

그랜드침대 매트리스
**편안함이
다르다!**



“작은 디테일까지 고려한 설계로, 깊은 숙면을 선사합니다”

G 그랜드침대

편안함의 전통, 그랜드침대의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www.grandbed.com / Tel. 031-945-2233



고소득 전문직 밀집 도룡동... 9년 만에 신축

도룡자이 라피크

GS건설

연구단지 인접, 중대형 설계 적용

GS건설은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일원에 들어서는 ‘도룡자이 라피크’를 선보인다.

도룡자이 라피크는 지하 3층~지상 26층, 4개 동, 총 299세대 규모다. 전용면적 84~175㎡의 중·대형 위주 설계가 적용된다. 전체 세대 중 약 50% 이상이 전용 85㎡ 초과 타입이다.

타입별 일반분양은 ▲84㎡A 23세대 ▲84㎡B 69세대 ▲84㎡C 48세대 ▲115㎡4세대 ▲120㎡A 75세대 ▲120㎡B 32세대 ▲136㎡A 20세대 ▲136㎡B 26세대 ▲PH 175㎡ 2세대 등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도룡동은 대전의 전통적 부촌으로 주거선호도가 높지만 2016년 이후 신규 분양이 없었다. 도룡자이 라피크는 도룡동에서 9년 만에 공급되는 신축 단지며, 도룡동 일대가 대부분 12층 이하의 저층 단지 위주인 것과 달리 최고 26층으로 들어선다.

도룡동은 대덕연구단지와 대기업연구소, 국책연구소, 국가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는 연구개발(R&D) 중심지다. 고소득 전문직과 교수, 연구원 등이 밀집 거주하며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형성하고, 직주근접 주거 수요로 인해 학군과 인프라가 형성되어 생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도보권 내 대덕초·대덕고를 비롯해 대덕중·대전과학고 등의



학군이 인접했다. KAIST와 국립중앙과학관, 유성도서관 등 교육·문화 연계 인프라도 풍부하다.

인근에는 북대전IC가 가까워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정부청사역내거리, 한밭대로까지 차량 10분 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는 동간 간섭을 최소화 했고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타입에 따라 4~5베이, 파우더룸, 현관창고, 팬트리, 드레스룸, 알파룸 등의 평면 설계를 통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센터 ‘클럽 자이언’에는 피트니스클럽, 실내 골프연습장, 사우나, 독서실, 주민카페와 북카페, 게스트하우스, 세대창고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활 편의를 돕는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도 도입된다.

건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대전MBC 인근)에 마련될 예정이다.

강남역 생활권, 프리미엄 주거단지로 재탄생

아크로 드 서초

DL이앤씨

39층 규모, 하이엔드 커뮤니티 조성

DL이앤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원에 ‘아크로 드 서초’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9층 아파트 16개동, 전용면적 59~170㎡ 총 1161가구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 59㎡ 5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아크로 드 서초는 서초동 내 대표적인 재건축 5개 단지 중 하나인 서초신동아 1, 2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조성한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역인 강남역까지 직선거리로 약 600m 거리에 위치한다. 지하철 2·3호선 교대역과 3호선 양재역도 가깝다. 강남을 대표하는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경부고속도로(서초IC) 등으로 접근이 쉽다.

단지는 서이초와 맞닿아 있으며 길 건너편에는 서운중이 위치한 학세권 단지다. 편의시설로는 강남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 상업시설을 비롯해 예술의 전당, 강남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 성모병원, 한전아트센터 등이 단지 반경 2km 내에 위치한다.

단지에는 아크로의 정체성을 담은 ‘아크로 가든 컬렉션’이 적용된다. 웰컴가든과 일상 속 여유를 담은 수경형 정원 워터오르간 램프가든, 물소리를 들으며 휴식하는 티라운지 캐스케이드 램프가든 등 다채로운 테마의 조경 공간이 단지 곳곳에 배치된다.

하이엔드 커뮤니티 ‘클럽 아크로’에는 프라이빗 스크린 골프라운지와 스크린 골프룸, 실내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 필라테스룸 등 입주민의 웰니스 라이프를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 또한 실내놀이터인 키즈라운지, 안전한 등하원을 위한 키즈 스테이션, 개인 독서실 스타일의 프라이빗 스터디룸 등 다양한 공간이 조성된다. 특히 특별한 휴식을 제공하는 스카이라운지(2개소)가 설치되며, 단지별 특화시설인 그랜드라이브러리와 비거리 골프룸, 올데이다닝까지 조성된다.

한편 아크로 드 서초는 사이버 주택전시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입주는 오는 2029년 1월 예정이다.



광역 교통망 확충 수혜... 신흥 주거지 부상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대우건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실수요자 관심 ↑

대우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3블록에 조성되는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총 1524가구의 대단지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분양 가구 수는 ▲74㎡A 594가구 ▲74㎡B 255가구 ▲84㎡A 590가구 ▲84㎡B 56가구 ▲84㎡C 29가구 등이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김포시 사우동 일대 약 87만 3763㎡ 규모로 조성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다. 공동주택 약 6500세대를 비롯해 5478㎡ 규모의 광장, 3만 5309㎡의 공원녹지 등 주거·상업·문화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초역세권 입지다. 이를 통해 김포공항, 마곡, 여의도, 광화문 등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수월하다. 김포한강로, 김포대로, 올림픽대로, 수도권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차량 이동 역시 편리하다. 특히 최근 개통된 검단신도시~풍무동 연결도로(대로3·7호선)는 인천 및 검단 지역과의 연계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인근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CGV, 풍무중심상권, 김포시청, 인천지방법원 김포시법원 등 다양한 인프라 시설이 갖춰져 있다.

평면은 총 1524가구 중 96.3%에 달하는 1468가구가 4베이 판상형 위주로 구성돼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74㎡와 84㎡ 타입으로 구성되어 선택의 폭도 넓었다. 단지의 통경축을 고려하여 설계해 답답함 없이 트인 공간감을 제공하고, 단지 내에 넓은 중앙광장인 ‘시즌 필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역세권에 자리한 최적의 입지에 더해 다양한 광역 교통망 확충의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단지”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푸르지오 브랜드의 대단지 주거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도시개발 중심 입지... 교육·생활 인프라 완비

트리브 서산

두산에너지빌리티

도심·산업단지 접근성 우수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충남 서산시의 도시개발사업 중심지 예천동에서 ‘트리브 서산’을 분양할 예정이다.

트리브 서산은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시공을 맡았다.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일원에 들어선다. 단지 규모는 지하 2층~지상 26층, 10개 동, 전용면적 84~128㎡, 총 829가구다.

타입별 가구 수는 ▲84㎡A 393가구 ▲84㎡B 113가구 ▲98㎡ 205가구 ▲110㎡ 73가구 ▲128㎡ 45가구 등이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와 판상형(84타입 제외) 위주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유리하게 했다. 또한 알파룸(84타입 제외), 베타룸(128타입), 팬트리, 디럭스 드레스룸 등을 마련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멀티라이브러리, 게스트하우스, 클라이밍 이벤트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등의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단지 내 조경과 연계된 커뮤니티 광장, 물놀이터, 석가산 수경시설과 운동시설이 조성된다. 또한 교육전문기업 종로엠스쿨과 계약을 완료해 입주민 자녀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서산시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오토밸리 등 석유화학 및 자동차 산업 관련 대기업이 자리하고 있어 충청남도 내에서 도 아산시에 이어 소득수준이 높은 도시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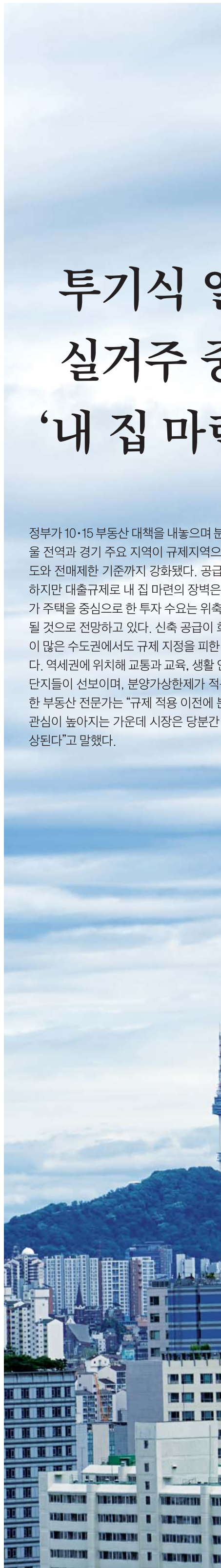
특히 트리브 서산이 위치한 예천동은 서산시 남부권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 중심지다. 단지 인근에는 공립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으로 서산을 대표하는 신흥 주거지로 변신 중이다. 교통망은 단지와 접한 서해로를 통해 서산 도심은 물론 대안, 당진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서산공용버스터미널도 반경 약 2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교육환경은 도보권에 서남초가 있으며 예천동 학원가도 이용하기 쉽다.

건본주택은 충남 서산시 예천동에 마련된다.

투기식 열
실거주 중
‘내 집 마련’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매제한 기준까지 강화됐다. 공급량도 늘었다. 하지만 대출규제로 내 집 마련의 장벽은 여전히 높다. 주택을 중심으로 한 투자 수요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축 공급이 늘고 있지만 기존 아파트의 매매가도 상승하고 있다. 이 많은 수도권에서도 규제 지정을 피한 지역이 많다. 역세권에 위치해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단지들이 선보이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도 늘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 적용 이전에는 투기 수요가 많았지만, 지금은 실수요자 중심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장은 당분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별기 식고 중심 재편 편의 기회'

양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서로 지정되면서 청약 자격은 물론 대출 한도책이 실현되는 데 까지는 시간이 필요 오히려 높아졌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고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전략이 강화 최소한 서울을 비롯해 실수요자들의 관심 김포와 인천, 파주 등에서 아파트가 나온 인프라 측면에서 실거주 여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시세차익을 노려볼 수도 있다. 분양을 시작한 단지나 비규제지역에 대한 관망과 선별적 접근을 병행할 것으로 예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10년 동안 내 집처럼!”… GTX-A 수혜권 눈길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더 스마트 대우건설

일반분양 수준 설계로 경쟁력 강화

대우건설은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더 스마트’를 공급한다. 단지는 파주시 다율동 운정3지구 A-8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18층, 총 9개 동, 총 55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기존의 임대 아파트와는 다르게 실수요자 선호가 높은 전용면적 59~84㎡로만 구성됐으며, 입주예정일은 2026년 6월이다.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더 스마트는 운정신도시 내에서 1군 건설사가 처음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세금 및 이사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 상품이다. 대우건설이 직접 운영·관리해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임대료는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또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이 최대 5%로 제한돼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췄다.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일반공급 외 신혼부부, 청년 특별공급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GTX-A 운정중앙역이 위치해 있으며, 향후 2028년(예정) 완전 개통 시 강남까지 3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경의중앙선 운정역,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파주-양주 구간 개통,



2027년 파주-김포 구간 개통 예정) 등 다양한 교통망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할 수 있다.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더 스마트는 운정해오름초를 비롯해 다율중과 다율고(2026년 3월 개교 예정) 등이 위치한다. 주변으로는 해오름공원, 도래공원 등 대규모 녹지 공간과 함께 운정호수공원도 가까이 누릴 수 있다. 중심상업지구 및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 쇼핑·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

단지는 일반분양 아파트 수준의 평면 구성과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다.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하고, 일부 세대는 판상형 4베이 구조, 대형 드레스룸, 현관 팬트리, 광폭 주방, 알파룸 등을 도입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했다.

단지 내에는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GX룸, 그리너리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건본주택은 파주시 다율동에 마련된다.

운정신도시 최대 규모… 새 랜드마크 예고

운정 아이파크 시티 HDC현대산업개발

총 3250가구로 운정 대단지 완성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파주시에서 ‘운정 아이파크 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파주 운정 최대 규모 아파트다.

단지는 경기도 파주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도시개발구역 A2블록(서패동 432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25개 동, 전용 63~197㎡, 총 325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63㎡ 243가구 ▲74㎡ 294가구 ▲84㎡ 1897가구 ▲99㎡ 415가구 ▲113㎡ 394가구 ▲펜트하우스(154~197㎡) 7가구 등이다.

운정 아이파크 시티는 GTX-A노선 운정중앙역을 이용해 서울역과 삼성역(예정)을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자유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평택파주고속도로(예정) 등 주요 도로망도 가까워 수도권 전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반경 3km 이내에 파주출판도시, 문발일반산업단지, 신촌일반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며, 운정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 생활 인프라

가 풍부하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롯데시네마, 스타필드 발리지(예정) 등 대형 쇼핑·문화시설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단지 앞 초등학교 부지를 비롯해 숲노을초(2026년 3월 개교 예정), 심학중, 심학고 등이 위치하며, 운정신도시 학원가 이용도 용이하다.

단지 내에는 수영장, 사우나, 실내 체육관 등 대단지에 걸맞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컨시어지 등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조경은 축구장 면적의 약 9배에 달하는 6만4000여㎡ 규모로 시그니처필드·어반클러스터·라이프가든 등 다양한 테마정원을 꾸며 단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공원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을 가깝게 누릴 수 있고, 교통, 생활, 자연, 편의시설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어 실수요를 중심으로 문의가 많다”며 “운정 최대 규모 아파트에 걸맞은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설계에 많은 공을 들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건본주택은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일원에 마련된다.



풍무역 도보 5분… 5호선 연장 기대감 더해

호반써밋 풍무 호반건설

전 세대 84㎡ 이상 구조 설계

호반건설은 경기도 김포시에서 ‘호반써밋 풍무(가칭)’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김포 풍무역세권 B5블록(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84~112.186P㎡, 총 956가구 규모다. 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84㎡A 331가구 ▲84㎡B 183가구 ▲112㎡A 408가구 ▲112㎡B 28가구 ▲186P㎡(펜트하우스) 6가구 등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총 6900여 세대, 인구 1만8000여 명을 수용하는 미니신도시 규모로 조성된다. 주거뿐 아니라 상업·교육·업무·행정 기능이 복합된 생활권으로 계획됐다.

호반써밋 풍무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을 도보 5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다. 풍무역에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계획)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김포대로를 끼고 있어 차량을 통해 김포한강로, 올림픽대로, 48번 국도 등을 통해 서울 접근성도 우수하다.

단지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 예정 부지와 인접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이례적으로 대학교 부지까지 공급됐다. 김포권 내 풍무역과 사우역 인근에 형성돼 있는 학원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했으며, 넉넉한 동간 거리를 적용해 채광 및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전 세대 전용면적 84㎡ 이상 구조에 4베이 판상형 구조 위주로 공급될 예정이며, 전용면적 112㎡ 일부 타입에는 5베이(Bay) 설계가 적용된다. 186P㎡는 테라스가 포함된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선보인다.

드레스룸, 현관창고 등 수납공간도 극대화했다.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선보일 계획이다.

건본주택은 사업지 인근(풍무역 1번 출구 인근)인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마련된다.



인천시청역 더블역세권… 초품아·공원 입지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한화·포스코이앤씨

GTX-B 예정 포함… 도보권 상권 인접

한화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원에 들어서는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을 내놓는다. 단지는 상인천초교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총 24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2568세대 규모며, 이 가운데 735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은 인천지하철 1·2호선을 이용 가능한 인천시청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다. 경인로를 통해 수도권제1·2순환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하다.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서울 합정·홍대입구까지 약 1시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하다. 인천시청역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개통도 예정돼 있어 교통 편의성과 미래가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 환경으로는 단지 바로 앞에 상인

천초교가 자리한 ‘초품아’이며, 반경 1km 내에 상인천중·구월중·간석여중·신명여고·인제고·인천예술고교 등이 밀집됐다. 인근 구월동 학원이 이용도 수월하다.

생활 인프라로는 홈플러스(구월점), 롯데백화점(인천점) 등 대형 쇼핑시설과 인천시청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도 가깝다.

단지는 이화여린이공원이 바로 앞에 위치했으며, 총 길이 3.9km에 달하는 중앙공원과 소공원, 만월산 등도 인접해 있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체육시설로는 골프연습장과 스크린 골프 등이 마련되며, 자녀 보육과 교육을 위한 키즈 북하우스, 그룹스터디룸, 1인 스타디움, 키즈 집 등도 계획돼 있다.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도 선보인다. 월패드·스위치·콘센트 등 배선기구류 통합 디자인을 적용한 포레나 옛지록, 로봇청소기 수납장 등을 선보일 계획이며, 이중 일부 품목은 유상옵션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건본주택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인천시청 인근)에 마련될 예정이며, 입주는 2029년 8월 예정이다.

D램 가격 고공행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상승여력 ‘충분’

각국 AI 투자 나서며 반도체 가격 ↑
오픈 AI, D램 월 90만장 공급 요청
모건스탠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 예고
메모리 공급부족 불가피… 매출 영향

지난 5월 SK하이닉스 주식 3000만원 어치를 매수한 직장인 유모(36)씨는 지난 21일 주당 48만8100원에 모두 팔았다. 며칠 만에 140%가 넘는 수익을 챙긴 데다, ‘조금만 더’ 하며 욕심부리다 매도 시점을 놓칠까 바로 처분했다. 그는 22일 삼성전자 주식이 황보하자 추가 매수했다. 유씨는 “삼성전자 주가가 높기는 하지만, 지금 아니면 살 기회가 없을 것 같다 매수한 것”이라며 “수익이 8~9%만 되면 미련 없이 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34)씨도 22일 9만5800원대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2000여만원어치 사들였다. 그는 지난해부터 월급을 받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10~20주씩 사서 모으고 있다. 그는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실적도 나쁘



ChatGPT에 의해 생성된 D램 가격 상승으로 주가상승이 예고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매수를 고민하는 투자자 이미지.

지 않고 배당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연 말까지는 꾸준히 사서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개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10만 전자’(삼성전자 주가 10만원)와 ‘50만 닉스’(SK하이닉스 주가 50만원)

가 고공행진 하면서다. 전문가들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며 ‘사라’고 외친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1.13% 하락한 9만8600원에 장을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0.52% 상승한 48만 1500원에 장을 마쳤다.

전문가들은 “지금이가장 쌀때다”라고 말한다.

글로벌 각국과 기업들이 앞다퉈 인공지능(AI) 투자에 나서면서 반도체 몸값이 오르고 있어서다. 지난 1일 한국을 찾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의 D램 공급을 요청한 것이 대표적이다.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 능력의 약 75%로 추산된다. 메모리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가격 상승, 대규모 투자가 결합해 상승 국면이 예고된 셈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메모리 부활(Resurgenc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내다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각각 11만1000원, 4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장에서는 주가 눈높이를 더욱 높여 잡고 있다. KB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46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신증권은 48만원에서 55만원으로 각각 상

향했다. 류형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 4분기 범용 D램 가격은 전 분기 대비 15~20% 상승할 것”이라며 “HBM4 12단 인 증에서 가장 앞서 있고 내년에도 점유율 1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원 KB증권 센터장은 “AI 데이터센터의 메모리 수요가 HBM 중심에서 서버 DRAM, GDDR7, LPDDR5X, eSSD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보수적 설비투자 기조로 단기 공급 증가가 어려워 2026~2027년 메모리 공급 부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이익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내년 SK하이닉스의 매출은 121조원, 영업이익은 64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키움증권은 목표가를 52만원으로, iM증권은 53만원으로 각각 올리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본격 진입을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AI 수요 확산과 D램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SK하이닉스의 이익 체력이 장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한양증권, 해외자금 조달 ‘빅딜’ 잇따라

글로벌 IB 조직 신설 반년만에 성과
500여개 해외 금융기관 네트워크 보유
국내기업 해외 시장 자금조달 지원

한양증권이 글로벌 투자은행(IB)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 가고 있다. 글로벌 IB 조직을 신설한 지 반년 만에 유럽·미국 등 주요 지역에서 굵직한 자금 조달 딜을 성사시키며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한양증권은 지난 3월 자본시장본부 내에 신설한 글로벌 IB 조직이 6개월 만에 주요 해외 자금 조달 딜을 잇따라 성사시켰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직은 신디케이트론 및 사모사채 주관·주선·자문을 중심으로 다루며, 최근 ▲벡센타이어 체코법인 8500만 유로 대출 ▲한화오션 2500억원 신디케이션 대리기관 업무 ▲현대제철 미화 7000만달러 대출 주선 ▲대신에프앤아이 500억원 대출자문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양증권은 조직 신설과 함께 해외 금융 전문가로 꼽히는 노형석 이사를 글로벌 IB 리더로 영입했다. 노 이사는 미국



한양증권 본사.

위스콘신주립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HSBC, 중국건설은행(CCB), 크레디 아그리콜(Credit Agricole), 중국공상은행(ICBC), BNK투자증권 등 국내외 주요 금융사에서 기업금융·신디케이션·ECA 수출금융·글로벌 IB 금융주선 등의 분야를 두루 거친 15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이다.

한양증권의 글로벌 IB 조직은 500여개 해외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률·세무·구조 설계 등 전문 분야를 포괄하는 체계를 갖추고, 복잡한 해외 거래에서도 안정적인

실행력을 확보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직접 딜을 소싱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효율성을 높인 점도 부각된다.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프로젝트 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자금조달과 신흥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특재형 IB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노 이사는 “지금까지는 신디케이트론 등 부채성 거래를 중심으로 성과를 쌓아왔지만, 향후에는 미국 나스닥(NASDAQ), 인도네시아(IDX), 태국(SET) 등 해외 증권거래소 상장사와의 자본성 거래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네트워크와 본부 내 자본시장 노하우를 결합해, 부채와 자본을 아우르는 해외 종합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 금융 기관뿐 아니라 현지 법률·회계법인 및 IB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금융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단순 금융주선에 머물지 않고 구조화·컨설팅 기능까지 포함하는 글로벌 IB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증권, ‘초고액자산가 5449명’ 유치

업계 최초 5000명 돌파·최다 기록

국내 자산관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지는 가운데, 삼성증권이 업계 최초로 ‘초고액자산가 5000명 시대’를 열었다.

삼성증권은 9월 말 기준 자산 30억원 이상 고객 수가 5449명으로 2020년 말 대비 91%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업계 최고이자 최다 기록이다.

삼성증권의 자산 30억원 이상 고객 수의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194%), 40대(184%), 20대(178%), 50대(147%), 60대(93%), 70대 이상(39%) 순으로 증가하면서 젊은 세대의 신규 유입이 초부유층 고객 수의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부유층 고객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내 현금 비중은 2020년 말 23.0% 수준에서 2025년 9월 말 11.5%로 11.5%포인트 감소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추세가 확인됐다. 이들 고객의 자산 포트폴리오에는 주

로 글로벌 자산으로 리밸런싱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전체 자산에서 해외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말 12.6%에서 2025년 23.2%로 10.6%포인트 증가했다. 주로 국내외 채권과 해외주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증권은 고급 리 환경에서 절세 메리트가 높은 저쿠폰 국제,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및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에는 국내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발맞춰 자산 30억원 이상 고객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도 늘고 있다.

/신하은 기자

3분기 DLS 발행액 7.6兆… 사모 중심 확대

예탁원 ‘3분기 DLS 발행·상환 실적’
사모 비중 전체 발행 77.3% 차지

국내 파생결합증권(DLS) 시장이 3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금리 연계형 상품 중심으로 발행이 늘면서 발행금액은 7조원을 넘어섰고, 잔액 역시 37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예탁결제원(KSD)이 22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DLS 발행·상환 실적’에 따르면 DLS 발행잔액은 37조5425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35조3483억원)보다 6.2%, 전년 동기(31조5660억원) 대비로는 18.9% 증가한 수치다. 발행금액은 7조625억원으로 전분기(6조4225억원)보다 10%, 전년 동기(4조7578억원)보다 48.4% 늘었다.

발행 형태별로는 사모 발행이 5조4864억원으로 전체의 77.7%를 차지했다. 공모 발행(1조5761억원)은 직전 분기(2조400억원)보다 22.7% 줄었지만,

전년 동기(1조4995억원) 대비 5.1% 늘었다. 사모 중심의 발행 확대가 시장 성장을 견인한 셈이다.

기초자산별로는 금리연계 DLS가 5조4601억원으로 전체 발행금액의 77.3%를 차지했다. 신용연계 DLS는 8645억원(12.2%)으로, 두 자산 유형이 전체의 89.5%를 점유했다. 환율연계 DLS는 4386억원(6.2%), 지수형은 2000억원(2.8%)으로 뒤를 이었다.

발행사별로는 하나증권이 1조7373억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NH투자증권(5622억원), 키움증권(4890억원), IBK투자증권(4595억원), 대신증권(4547억원)이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증권사의 발행금액은 총 3조7027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52.4%를 차지했다.

3분기 DLS 상환금액은 5조2977억원으로 전분기(4조2657억원) 대비 24.2%, 전년 동기(4조4210억원) 대비 19.8% 증가했다.

/허정윤 기자

하나증권, 3세대 고객에 감사 마음 전해

‘대대손손 가족 손님 이벤트’ 진행

하나증권이 손님 중심 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대대손손 가족 손님 이벤트’를 진행하고, 3세대 이상 거래 중인 가족 손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하나증권은 올해를 ‘손님 중심 가치 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고객 경험을 경영의 핵심 축으로 두는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하나증권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3세대 이상 거래 중인 가족 고객 30명을 선정해 세대에 걸쳐 회사와 함께해준 데 대한 감사를 전했다. 이 중 10명에게는 3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급 호텔 이용권을, 20명에게는 커팅 보드를 증정했다.

회사는 이를 계기로 고객 가치 중심

문화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회사 발전에 기여한 손님의 공로를 기리는 ‘명예의 전당’을 마련해 수익 기여, 고액 자산, 장기 거래, 회사 공헌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고객을 선정하고, 현액 및 CEO 주관 프라이빗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이사는 “오랜 기간 거래 중이신 손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직원에게는 손님은 회사와 함께 동반 성장하는 공동체임을 인식하기 위해 준비한 시리즈”라며 “올해 첫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연례화하여 하나증권만의 차별화된 손님 중심 가치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건강창업의 모든 것!



대한홍삼(주)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햅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www.koreahongsam.co.kr

창업문의 : 1522-7585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햅터그룹
Haetter Group

(주)햅터
(주)햅터방송_브레인TV
(주)햅터라이프_햅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기후부 출범, 녹색문명 전환 초석 풍력발전 산업 생태계 적극육성”

김성한 장관, 풍력업계 간담회

“해상풍력, 국가 성장동력 육성
육상풍력 전담 TF 조속히 출범”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풍력발전의 보급 확대와 함께 관련 산업 생태계를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풍력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기후부는 과거 환경부가 주로 담당해온 규제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두산, 유니스 등 터빈 업체를 비롯해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성동조성 등 주요기자재 업체와 SK이노베이션 E&S,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파트너스, 크레도, GS원드 등 국내외 개발사 임직원과 풍력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기후부 출범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풍력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후부

은 화석연료 중심의 탄소문명을 조속히 재생에너지 기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는데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녹색문명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흥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선두부처 역할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에

대한 구체적 정책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해상풍력은 선행 신규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육상풍력은 장관 주재 범정부 전담반(TF)을 조속히 출범시켜 업계 인허가 문제를 일괄방식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업계는 인허가 지연, 주민 수용성 문제, 금융투자 지원 한계 등 풍력발전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정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육상풍력 범정부 전담반(TF) 출범 ▲해상풍력 범정부 전담반(TF)을 통한 신규사업(프로젝트) 인허가 지원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업계, 관련 전문가와 함께 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최적의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국전력은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 규모의 HRD 컨퍼런스인 Unleash World에서 '2025 Unleash HRD Award'를 수상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엘리엇 토마스 Unleash CRO, 윤여일 한국전력 인사처장, 모 코기 Unleash 영업총괄. /한전

한전, 유럽 HRD ‘언리시 어워드’ 수상

인재개발 체계·육성 모델 인정받아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유럽 인적자원개발(HRD) 분야 최고 권위의 '2025 Unleash HRD Award'를 수상했다. 이는 지난 5월 미국 인재개발협회(ATD) 주관 'BEST Awards'를 2년 연속 수상한 데 이어,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유럽 양대 HRD 종합대상을 같은 해 동시 석권한 쾌거다.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 규모 HRD 컨퍼런스 'Unleash World'에서 한전은 조직의 전략적 인재개발 체계와 포용적 인재 육성 모델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Unleash HRD Award'는 유럽인재개발협회(EAPM)와 글로벌 HR테크그룹 Unleash(영국 소재)가 공동 주관하며 ▲조직 내 인재개발의 전략적 활용 ▲HRD 기능의 영향력 ▲성과 연

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한전은 이번 수상에서 'Global Energy & Solution Leader' 비전 실현을 위한 HRD 혁신 전략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인사·교육·평가 전반에 반영한 새로운 인재상 'P.O.W.E.R.(Passionate·Open-minded·Wise-thinking·Ethical·Responsible)'을 중심으로, HRD를 단순 지원 기능이 아닌 성과창출 전략 파트너로 전환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또 고졸 인재를 포함한 포용적 성장체계도 큰 호응을 얻었다. 한전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협력해 '에너지 신기술 융합학과'를 개설, 고졸 직원의 경력·학습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직무별 역량사전을 기반으로 한 성장 로드맵 체계화, 근무 중 학습을 보장하는 '축적의 시간' 제도 등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음식점 노쇼’ 위약금 최대 40%로 상향

‘예약기반음식점’ 별도로 구분
예약보증금·위약금 사전 고지해야

앞으로 오마카세 등 예약 기반 음식점 예약을 취소하거나 ‘노쇼(no-show)’를 할 경우,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스타디카페·예약업·외식업·숙박업·국외여행업·운수업·결혼준비대행업·체육시설업·가전제품설치업 등 9개 업종과 공산품·문화용품·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이 대상이다. 그간 일부 업종별 표준약관이 개정됐으나, 분쟁 해결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식업에서는 ‘노쇼(예약부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

를 준비하는 식당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 상한을 기존 10% 이하에서 최대 4배 높인다. 이에 따라 예약기반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로 위약금을 정할 수 있다.

또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도 예약기반음식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 기준이 적용된다.

음식점이 받은 예약보증금이 위약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하며,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면 그 기준을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예약장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기준도 현실화한다. 현행 기준은 예약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취소 시 총비용의 35%였으나, 개정안은 △29일 전 ~ 10일 전 취소 시 40% △9일 전 ~ 1일 전 취소 시 50% △당일 취소는 70%까지 위약금을 인정하도록 조정했다. 이는 음식폐기 등 음식점의 실제 피해를 반영한

조치다.

또 예약계약 후 맞춤형 이벤트나 추가상담이 이뤄진 경우, 소비자 서면 동의가 있고 위약금이 없는 계약 취소일 때 한정적으로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단, 계약 체결 이후 제공된 세부 상담에 한하며, 위약금과 상담비를 중복 청구할 수는 없다.

그 외에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숙소뿐 아니라 출발지~숙소 경로 중 일부’에 재난이 발생해도 무료 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국외여행업은 정부 명령에 따른 무료 취소사유를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소비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촌빈집 정비 모태펀드 민간투자 본격화

농식품부, 민자유치 제도개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농촌 빈집 및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간 농촌 빈집 등의 미관 저해 및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후 빈집 활용에 대한 다양한 민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에는 민간의 투자수요가 반영됐다. 농어촌정비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빈 건축물 정비사업이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민간의 자본 유입이 활성화돼,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aT, 농업-기업 우수협력 5건 추가선정

우수사례 온·오프라인 채널에 확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25년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2일 공사에 따르면 이달 선정된 우수사례는 총 5건으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외식 신제품 개발과 청년농 생산 지원(롯데지알에스) ▲전국 원료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확대 및 소스류 납품(비에이치앤바이오) ▲지역 포도 생산자와 공동 품질관리 및 고품질 전통주 생산(농업회사법인 화성양조장) ▲잉여농산물 구매 및 지역 홍보 연계 가공식품 개발(농업회사법인 온세까세로) ▲계약농가 생산물량 전량구매 및 과제음료

개발(농업회사법인 일농)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 8월 1차 우수사례 선정 이후,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사례 추가 발굴을 위해 9월 15일부터 진행됐다. aT는 지역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잉여농산물 활용, 계약재배 확대 노력 등을 높이 평가해 5건의 농업-기업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추가적으로 선정했다.

aT는 이번 우수사례를 카드뉴스, 홍보영상, 우수사례집 등으로 제작해 온·오프라인 채널에 확산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는 상생협력 로고 디자인 부여, 대외 포상 추천, 식품의식종합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공급망 구축’ 논의

KIAT, 24일까지 관련행사 열어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수요·공급기업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2일 ~2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소부장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 교류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부와 KIAT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한국기계산업진흥회·한국자동차연구원·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한국바이오협회 등 6개 기관이 주관했다.

행사는 기술개발 이후 양산·납품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부장 공급기업들이 수요기업과 직접 만나 협력 방

안을 논의하고, 실제 생산라인에서 제품 성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KIAT의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은 기술개발이 끝난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실제 시장에 안착하도록 돕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지난 5년간 약 1800억 원을 투입해 634개 기업의 양산성능평가를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7153억 원 규모의 사업과 매출을 달성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이커머스, ‘역직구’ 활로 모색… 내수부진 파고 넘는다

G마켓 알리바바와 맞손

‘G to Global 프로젝트’ 시너지
5년내 연간 1조 이상 거래액 목표

컬리 美 공략 ‘컬리 USA몰’ 오픈
9000여종 50개주에 항공 직배송

포화 상태에 이른 내수시장의 돌파구를 찾아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역직구(해외 직접 판매)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도 온라인 수출 활성화 지원을 언급하는 가운데 높은 물류비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주자는 G마켓이다. 이달 21일 G마켓은 미디어데이를 통해 알리바바와의 시너지를 활용한 ‘G to Global 프로젝트’로 역직구 시장 확대에 나서며 5년 내 연간 1조원 이상 거래액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최근 알리바바와 합작법인을 설립한 G마켓은 알리바바 계열 지역 플랫폼을 활용해 세계 각지로 판로를 넓힌다. 라자다(Lazada)와 제휴를 맺고 동남아 5개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2027년까지 남아시아, 유럽, 북미 등으로 단계적으로 진출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G마켓의 영문·중문 사이트인 ‘G마켓 글로벌샵’을 통해 세계 100여개국 고객을 대상으로 중소셀러 상품



G마켓이 지난 21일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역직구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G마켓

을 선보인다. G마켓은 자체적인 역직구 관련 서비스 구축이 어려운 중소셀러를 위해 상품 정보 번역부터 해외고객 CS(고객 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컬리는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컬리는 이달 16일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역직구 서비스 컬리USA몰을 정식으로 열었다. 컬리USA몰에서 주문된 상품은 평택 물류센터에서 출고돼 항공편으로 미국 50개 주에 직배송된다. 현재 육류, 알코올, 유제품 등 통관이 불가능한 제품을 제외하고 9000여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컬리 관계자는 “지난해 한인마트에 납품하는 형태로 수출을 시작해 미주한인을 1차 타겟으로 운영을 시작했다”며 “미국 시장은 다양한 인종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 성장성이 높는데

K-푸드 열풍 등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향후 현지 시장으로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기업들이 역직구에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성장 정체에 빠진 국내 시장 대신 해외에서 새로운 고객과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역직구 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적었기에 시장 규모가 작았지만, 국내 시장이 포화되면서 모든 이커머스 업계가 온라인 수출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고객층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중소 판매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언어, 세금, 배송, CS, 현지 마케팅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G마켓은 올해 상반기 419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 개선

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역직구 시장 규모는 해외 직접구매(직구)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 조승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 건수는 1억8000만 건에 달하는 반면, 해외 소비자의 국내 상품 역직구는 6000만 건으로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역직구 시장의 더딘 성장을 지적하며 지원책 마련을 시사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의 해외 직구는 늘고 있는데 역직구 시장 성장은 매우 더디다”며 언급했다. 조 의원 역시 “K-브랜드에 대한 해외 수요가 뚜렷한 만큼,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역직구 시장은 규모가 작아 정부의 관심이나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영역”이라며 “세금 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도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 8월 미국이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 면세를 폐지하면서 현지 소비자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시장이지만, 이번 관세 인상은 업계 전반이 공통적으로 안고 가야 할 부담”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팔도

‘이천햇쌀 비락식혜’ 누적판매 100만개

팔도 ‘이천햇쌀 비락식혜’ 누적 판매량이 출시 6주 만에 100만 개를 돌파했다.

이는 팔도가 예측한 시점보다 5배 빠른 속도다. 팔도는 늘어나는 수요에 발맞춰 생산량을 늘리고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전통음료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천햇쌀 비락식혜는 팔도가 9월 선보인 프리미엄 식혜다. 경기도 이천에서 당해 생산된 쌀을 사용해 만들었다. 기획 단계부터 소비자 조사를 통해 선호도 높은 지역 농산물을 선정했다.

팔도는 신제품 인기 요인으로 섭취 편의성과 품미 개선을 꼽았다. 전통음료 최초로 풀오픈(Full Open)캔 패키지를 적용했다. 캔 상단 전체가 열리는 형태로, 입구가 넓어 가라앉은 밥알까지 섭취할 수 있어 소비자 만족도를 높였다. 유튜브 등 SNS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맛과 식감의 개선도 주효했다. 기존 제품 대비 밥알을 20% 늘려 씹는 식감을 더했다. 옛기름에서 우려낸 단맛으로 전통 식혜의 품미도 살렸다. 실온 보관이 가능하며, 특히 약 5시간 냉동(-18℃ 이하) 보관하면 슬러시 형태로 즐길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쿠팡, NBA 팬샵 열고 공식상품 단독판매 나서

LA레이커스 등 25개 구단 굿즈 선배
클럽저지·레전드스타 굿즈 등 포함

쿠팡이 미국프로농구(NBA) 2025-26 시즌 개막을 맞아 NBA 공식 상품(MD)을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쿠팡은 NBA의 공식 중계 파트너이기도 하다.

쿠팡은 ‘팬샵’을 열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LA 레이커스 등 25개 NBA 구단의 굿즈를 선보인다. 판매 품목은



쿠팡이 NBA 공식 상품을 단독으로 선보이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쿠팡

‘미chel앤네스’의 클럽 저지, 맨투맨 의류부터 농구공, 모자까지 다양하며, 팀 던컨, 샤킬 오닐 등 레전드 스타들의 굿즈도 포함됐다. 또한 한세엠케이에서 제작한 캐주얼 의류와 키즈 라인도 만나볼 수 있으며, 판매 상품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팬샵 론칭은 지난 6월 쿠팡과 NBA가 맺은 파트너십의 연장선이다. 쿠팡플레이를 통한 국내 독점 생중계에 이어 커머스 영역으로 협력을 확장

한 것이다. 양사는 앞으로도 콘텐츠와 커머스를 아우르는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공식 MD 판매는 쿠팡플레이의 NBA 국내 독점 생중계와 맞물려 팬들에게 더욱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쿠팡플레이는 이날 개막전을 시작으로 2025-26 시즌 주요 경기를 한국어로 생중계하며, ‘스포츠패스’ 가입자는 모든 NBA 콘텐츠를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다.

/손종욱 기자



CU가 하인즈와 손잡고 간편식 시리즈를 내놓는다.

/CU

CU-하인즈

오므라이스 정식 등 콜라보 간편식 선배

편의점 CU가 글로벌 소스 브랜드 ‘하인즈(Heinz)’와 손잡고 ‘하인즈 콜라보 간편식 시리즈’를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 하인즈와 협업한 베이커리 상품이 좋은 반응을 얻자, 간편식 카테고리 협업을 확장한 것이다.

이번 신제품은 하인즈의 대표 소스인 케첩, 마요네즈, 데미글라스 소스 등을 활용해 정통 소스 맛을 간편식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대표 메뉴로는 하인즈 케첩을 사용한 ‘오므라이스 정식’과 ‘미트볼 파스타’가 있다. 또한 데미글라스 소스를 활용한 ‘데미함박버거’, ‘볼스아이바비큐 소스를 넣은 BBQ 핫도그’도 함께 선보인다. 이외에도 ‘쵸아삼각김밥’과 레트로 스타일의 ‘스페셜 토스트’도 만나볼 수 있다.

BGF리테일 간편식품팀 한소영 상품기획자는 “첫 하인즈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을 확인한 만큼 이번에는 편의점 대표 카테고리인 간편식으로 콜라보 영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롯데웰푸드, 韓·파키스탄서 ‘쌀로칩’ 출시

‘쌀로’ 브랜드 첫 현지 생산

롯데웰푸드가 건강한 쌀로 만든 스낵 브랜드 ‘쌀로(SSALO)’의 신규 라인업 ‘쌀로칩’을 한국과 파키스탄에서 동시에 선보였다. 각국의 식문화를 반영한 현지 맞춤형 제품으로 특히 파키스탄에서는 ‘쌀로’ 브랜드가 처음으로 현지 생산에 들어가며 글로벌 확장의 신호탄을 쏘았다.

국내에서는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선호하는 소비자 취향에 맞춰 ‘쌀로칩 들기름 김맛’을 출시했다. 국내산 김과 진한 들기름을 사용해 품미를 살리고, 가볍고 바삭한 식감으로 차별화했다. 또한 글루텐 프리(Gluten-Free) 제품으로 밀가루에 민감한 소비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파키스탄 시장에는 현지의 강한 향신료 문화에 맞춘 ‘쌀로칩 플레이밍 핫’, ‘쌀로칩 스모크드 파프리카’ 두 가지 맛을 내놨다. 현지 인기 향신료에 한국식 매운맛을 더해 새롭지만 익숙한 품미를 구현했다는 설명이다.

롯데웰푸드는 파키스탄 법인과 롯데 중앙연구소가 협업해 현지 소비자 조사를 진행하고,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맛을 완성했다. 두 제품 모두 할랄(HALAL) 인증을 획득해 다양한 소비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다.

패키지에는 브랜드명 ‘쌀로’와 제품명 ‘쌀로칩’을 한글로 그대로 표기해 한국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마트, 전점서 일주일간 핫 생굴 판매

가리비·데친문어 등도 할인

롯데마트가 올해 첫 수확한 핫 생굴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롯데마트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전점에서 생굴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판매는 같은 날 경남 통영 굴수확식수협 위판장에서 열리는 ‘2025년 생굴 초매식’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올해 굴은 지난해보다 고수온과 태풍의 영향을 덜 받아 생산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마트는 지난 2월부터 양식어가와 사전 계약을 통해 총 50톤의 물량을 확보했으며, 이달 16일 대형마트 중 가장 빠르게 햇굴을 선보인 바 있다. 올해는 통영 외에도 거

제, 고성 지역의 굴을 함께 판매할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생굴의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 해양심층수와 생굴을 1대1 비율로 섞어 포장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이달 23일부터 29일까지 ‘가리비’, ‘데친문어’, ‘손질 오징어’ 등 다른 수산물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롯데마트·슈퍼 이양구 수산팀 상품기획자는 “올해 남해안에서 키운 굴을 매장에서 빠르게 만나볼 수 있도록 초매식 기간에 맞춰 생굴 운영을 준비했다”며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만큼 겨울 제철 먹거리인 생굴을 부담없이 즐기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K-톡신, 中 시장 정조준… 휴젤 ‘선도’ 메디톡스·대웅 ‘가세’

휴젤 레티보 출시 5년차 맞아
메디톡스 뉴릭스 등 발매 예정
대웅제약 나보타 품목허가 재신청

국내 보툴리눔 독신 기업들이 세계 2위 규모의 중국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선두 주자인 휴젤에 이어 메디톡스, 대웅제약 등이 중국 진출을 추진하면서 ‘K톡신’ 3대장의 글로벌 전략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22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휴젤은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중국 보툴리눔 독신 시장에서 K톡신 입지를 넓히고 있다.

2020년 10월 중국 식품의약품관리국(NMPA)에서 보툴리눔 독신 제제 ‘레티보’ 100유닛의 최종 승인을 획득하며 시장에 진입했다. 이후 2021년 2월 ‘레티보’ 50유닛을 추가 승인받았다.

올해로 중국 출시 5년차를 맞은 레티보는 현재 중국 의료성형기관 중 약 85%에 해당하는 6800여 개 기관으로 공급되고 있다. 레티보의 중국 미용 및 성형 의료 시장점유율은 15% 수준이다.



레티보



/휴젤

뉴라미스

/메디톡스



나보타

/대웅제약

이와 함께 휴젤은 2022년부터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 등을 정식으로 선보여 신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또 하이엔드 코스메틱 브랜드 웰라쥬, 바이리즌 비알 등을 전개해 고기능성 제품을 내놓고 중국 현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를 기반으로 휴젤은 올해 상반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72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규모다. 또 상반기 보툴리눔 독신 및 필러 수출 매출에서 아시아 지역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1%에 달한다. 휴젤은 중국 내 파트너사 사후계약과

협력하고 있으며 유통망 확대, 의료진 대상 학술 활동, 브랜드 마케팅 등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대규모 브랜드 행사를 열었다. 특히 현지 의료진을 비롯한 전문가, 중국성형협회 관계자 등과 적극 교류했다.

휴젤 지승욱 사업총괄 부사장은 “이번 행사는 실제 만리장성을 배경으로 기획해 만리장성이 지닌 ‘무한’의 의미를 반영하고 레티보가 추구하는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임상적 탐구 의지를 표현했다”며 “정품 인증 활동, 휴젤만의 학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품 신뢰도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도 중국 시장 초읽기에 나섰다. 중국에서 보툴리눔 독신 제제 ‘뉴릭스’,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지난해 말 중국 해남 스타우 투자유한 회사와 뉴라미스, 뉴릭스의 중국 수출을 위한 총판 계약을 각각 체결한 바 있다. 이후 해남 스타우는 뉴릭스 중국 임상 3상과 품목허가 절차를 전담하고 있다. 오는 2028년 발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중화권 국가를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

다. 앞서 대만에서는 2020년 ‘뉴라미스’, 2021년 ‘메디톡스’ 등을 각각 품목허가를 획득해 시판하고 있다. 신제품인 뉴릭스의 경우, 올해 상반기 임상 1상 첫 환자 투여를 완료했다. 올해 안에 임상 1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도 지난달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보툴리눔 독신 ‘나보타’ 품목허가를 재신청하며 중국 시장에 출사표를 냈다. 앞서 2021년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7월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현지 규제기관의 검토가 통상적인 기간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회사 내부의 종합평가와 사업 개발 전략 조정에 따른 것”이라며 “품목허가 신청자료에 대한 충분한 보완을 거쳐 재신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중국 시장은 상대적인 규모 측면에서만 뿐 아니라 가파르게 성장하는 속도에서도 시장성이 크다”며 “의약품인 만큼 안전성 입증이나 규제 준수에 따른 장벽을 넘어서면 K뷰티와 미용의료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경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종근당, 신약개발 전문 자회사 신설

아첼라 창립식… 이주희 대표 임명
비만 분야 등 혁신 파이프라인 확보

종근당은 신약개발 전문회사 ‘아첼라(Archela Inc)’를 자회사로 신설하고 창립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명 아첼라는 시작, 근원, 원리를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아르케(Archē)’와 생명, 조화, 확장을 상징하는 어미 ‘라(-la)’를 결합해 ‘근원에서 피어난 생명’, ‘근본에서 확장되는 조화로운 성장’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한 사람에서 전 인류까지, 예방부터 치료까지 제약기술 혁신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제약기업 종근당의 사명을 실천하면서 글로벌 신약개발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아첼라는 개발에만 집중하는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 형태의 전문회사로 신규 파이프라인 발굴과 임상 진행, 기술수출 및 상용화 등 신약개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 회사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미래



20일 서울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열린 아첼라 창립식에서 아첼라 이주희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장동력이 될 혁신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CETP 저해제 ‘CKD-508’, GLP-1 작용제 ‘CKD-514’, 히스톤탈아세틸화효소6(HDAC6) 저해제 ‘CKD-513’ 등 세 개의 파이프라인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CKD-508은 CETP 저해 기전을 활용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영국 임상 1상에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지난해 미국 FDA

로부터 미국 임상 1상을 승인받았다. C KD-514는 경구 투여가 가능한 GLP-1 작용제로 비만 및 당뇨 분야에서 혁신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약물이다. CKD-513은 뇌혈관장벽(BBB) 투과가 가능한 HDAC6 저해제로 난치성 신경질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후보물질이다.

신설법인 아첼라의 대표이사에는 종근당 연구소 출신의 이주희 박사가 임명됐다.

이 대표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의대 삼성암연구소와 미국 뉴욕의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MSKCC)에서 박사 후 과정을 거쳐 종근당에 합류했다.

아첼라이주희 대표는 “아첼라의 창립은 종근당 신약개발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보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종근당의 핵심 파이프라인에 집중하여 신약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집’ 뉴욕 세프 맞이

난로학원 협업… 한국 전통미학 전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북촌 ‘설화수의 집’에서 뉴욕 대표 셰프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한식 산업화와 인재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난로학원과 협업한 것으로 한국 전통미학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참여한 셰프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독창적인 미식 세계를 구축한 인물들이다. 뉴욕 한식 레스토랑 ‘아토믹스’의 박정은 대표, 멕시코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코리마’의 미슐랭 오너 셰프 피델 카바에로, 프랑스와 일본 요리를 결합한 레스토랑 ‘유’의 오너 셰프 유시

마노, 스시 바 ‘나미 노리’의 공동 창립자 지한 리, 필리핀 전문 요리 ‘몰라스’의 오너 셰프 수잔 컵스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한국 현대미술 단색화에서 영감을 얻은 설화수의 지함보 한복을 입고 북촌길을 걸으며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기는 등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또 설화수 핵심 원료인 인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한국적 유산임과 동시에 과학적 근거를 갖춘 K뷰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와 현대적 미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북촌 설화수의 집에서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려 그 의미를 더했다”며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확산하는 데 일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애티스-제이투에이치, ADC 신약개발 맞손

애플리케이션·오피스플렉스 활용 공동연구

동아에스티의 항체·약물접합체(ADC) 전문 회사 애티스는 제이투에이치 바이오텍과 ‘차세대 ADC 신약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애티스의 항체 접합 기술 ‘애플리케이션’과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의 약물 플랫폼 ‘오피스플렉스’를 활용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동연구에서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은 초고활성 세포독성 약물을 설계하고 합성하며, 애티스는 이를 항체에 정밀하게 접합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항체 대 약물 비율을 구현한다.

양사는 세포 수준의 선택적 세포독성



지난 21일 애티스 본사에서 김재선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 대표, 한태동 애티스 대표(오른쪽)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아에스티

평가를 거쳐 종양이식 마우스 모델에서 효능과 약동학을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비임상 ADC 후보물질을 선정한다. 향후 도출된 후보물질에 대한 전임상 연구 진행, 임상 진입, 글로벌 기술이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한국콜마, ‘트리스 바이페닐 트라이아진’ 식약처 등록

〈자외선차단 원료〉

화학적·물리적 차단 기능 동시 구현

한국콜마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외선차단 원료 ‘트리스 바이페닐 트라이아진’을 신규 등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원료는 단일 성분이지만 자외선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기능을 이중으로 갖췄다. 자외선을 흡수해 열로 바꾸는 화학적 차단제와 자외선을 반사해 산란

시키는 물리적 차단제의 원리를 동시 구현한다. 파장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 자외선 전체를 차단하는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원료 개발에는 세계 최대 종합화학기업 ‘바스프’와의 협력이 뒷받침됐다. 바스프는 자외선 차단 원료를 공급하고, 한국콜마는 해당 성분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하며 효과를 최적화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한국콜마는 원료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브이 엑스퍼트 부스팅’ 기술도 독자 개발했다. 이 기술은 자외선차단 원료가 피부에 고르게 발리도록 돕고 피부 표면에 균일한 보호막을 형성해 유효성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인다.

한국콜마는 차세대 원료와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해 국내외 화장품 제조 및 브랜드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한국인의
패스트 푸드를
세계인의
베스트 푸드로

| 리아 새우 |

| 리아 불고기 |



TASTE THE FUN

LOTTERIA™



메인비즈협회, 산학협력·RISE 사업 추진 ‘맞손’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메인비즈협회 대구경북연합회, 경북전문대학교와 함께 산학협력 활성화 및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추진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서 (왼쪽 네번째부터)최재혁 경북전문대학교 총장,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강병하 메인비즈협회 대구경북연합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메인비즈협회



대우건설, 취약계층 어르신에 무료급식 제공

대우건설은 지난 21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결식 우려 및 생활이 어려운 취약 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 활동인 ‘대우건설 데이(Day)’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2025년 ‘서울노인복지센터 무료 급식 지원 사업’을 회사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선정하고, 사업 재정적 후원을 위해 지난 4월 1억 5000만원을 기부했다. 향후 3년 간 총 4억 5000만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스타벅스, ‘Hero 프로그램’으로 경찰관·자녀 지원

스타벅스 코리아는 전날 경찰의 날을 맞아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을 응원하고자 커피, 푸드 지원과 더불어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스타벅스가 지난 2월 18일 경찰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맺은 스타벅스의 ‘Hero 프로그램’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스타벅스



현대차그룹, 아동학대 예방·피해아동 지원 강화

현대차그룹은 22일 서울 중구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성 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윤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우리금융경영研·금행넷, 미래세대 금융교육 기부

우리금융경영연구소와 사단법인 금융과행복네트워크는 22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디지털타워에서 ‘With우리 이코노미클래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지난 21일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왼쪽),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금행넷)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행넷

포스코그룹, 개방형 혁신 종합 플랫폼 ‘체인지업’ 론칭

벤처 육성 효과 극대화 계획
‘혁신성장 벤처펀드’에 출자
청년 취·창업 문제 해결 기여

포스코그룹이 개방형 혁신 종합 플랫폼 브랜드인 ‘체인지업’을 론칭하고 지역 창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에 출자했다고 22일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체인지업’ 브랜드 아래 그동안 운영해 온 벤처 육성 플랫폼을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는 ‘스타트(Start)’ ▲단계별 투자 펀드로 성장을 지원하는 ‘부스트(Boost)’ ▲사업화와 실증이 이뤄지는 거점 공간인 ‘그라운드(Ground)’로 통합하고 운영 방향을 정교화해 벤처 육성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브랜드 선포식에 앞서 포스코그룹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결성식.

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경북도 등 지자체, 금융기관이 함께 결성하는 총 1011억원 규모의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에 출자했다.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는 경북 지역내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하며, 포스코그룹은 펀드 운영위원으로 참

여해 지역발전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그룹의 미래 성장 기회를 찾을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1997년부터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오며 그룹 신성장동력 발굴 및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취·창

롯데, 우수 中企 유럽시장 진출 지원

25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롯데-韓 브랜드 엑스포’ 열어

롯데가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3일부터 25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를 개최한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KOTRA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구매력 높은 중앙유럽 시장을 겨냥해 마련됐다.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는 2016년 대만에서 시작해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롯데의 대표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1460여 개 중소기업이 참가해 1만 건 이상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누적 상담 실적은 11억5천만 달러(약 1조6500억 원)에 달한다.

이번 오스트리아 행사에는 뷰티, 푸드, 생활용품 등 분야의 국내 우수 중소기업 50개사가 참가한다. 행사 기간 독일, 헝가리 등 유럽 7개국 바



롯데가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브랜드 엑스포를 개최한다. /롯데

이어 200여 명을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진행하며,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전도 열어 제품 경쟁력을 검증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K-뷰티 쇼케이스, 쿠팡쇼 등 한국 문화를 알리는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오스트리아는 1인당 GDP 수준과 구매력이 높은 중앙유럽 시장으로, 최근 K-뷰티와 K-푸드 등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행사가 참여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국순당, ‘횡성한우축제’ 후원활동 펼쳐

‘국순당 팝업존’ 운영

국순당이 본사 및 양조장이 위치한 강원도 횡성의 대표적인 축제인 ‘횡성한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국순당 팝업존’ 운영, 막걸리 빗기 체험 등 다양한 후원 활동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횡성한우축제 메인 무대 옆에 설치되는 ‘국순당 팝업존’은 축제 방문객에게 횡성 한우와 어울리는 우리술을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한다. 백세주, 국순당 생막걸리 등 정정 강원횡성에서 빚는 다양한 국순당 제품을 맛볼 수 있다. 사라진 우리술을 복원한 복원주 등 국순당의 주요 제품들과 국순당 횡성양조장 주향로에 전시된 우리술과 관련된 옛 도

구들도 옮겨 전시해 우리 술에 대한 역사 소개와 볼거리도 마련했다.

‘명품 횡성한우와 어울리는 국순당 막걸리 빗기 체험’도 진행한다. 축제 기간중 1일 2회, 총 10회에 걸쳐 진행한다. 백설기로 국가무형유산인 막걸리 빗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참가자는 횡성한우축제 홈페이지 및 현장에서 화차별로 선착순 모집한다. 공식 후원사 국순당의 특별 후원으로 참가비는 무료로 진행된다.

축제 참가객이 횡성한우와 어울리는 우리술을 좀 더 부담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횡성한우구이터와 다양한 참여 음식점에서 백세주를 특별한 가격에 제공한다. 이외에도 뽑기 이벤트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진행하고 선물도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공영홈쇼핑, ‘사랑의 헌혈’ 봉사 진행

임직원 50여명 참여

공영홈쇼핑이 대한적십자사와 ‘사랑의 헌혈’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22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헌혈 인구 감소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마포구 공영홈쇼핑 사옥 앞에 준비된 헌혈버스에서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공공기관 홈쇼핑으로서 생명 나눔을 위한 봉사활동에 동참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ESG경영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1월 대한적십자사와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맺고 재난피해 복구 지원, 탄소중립 환경실천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왔다. /김승호 기자 bada@



2025 렉서스 영파머스 꾸러미 기부 행사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렉서스코리아

‘렉서스 영파머스’ 신규 청년농부 선발

렉서스코리아, 농산물 기부행사도

렉서스코리아는 지난 21일 렉서스 복합문화공간 커넥트투(Connect T o)에서 ‘2025 렉서스 영파머스(LEX US Young Farmers)’ 신규 농부 선발 기념 업무협약 체결식과 함께 친환경 농산물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렉서스 영파머스’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는 청년 농부를 발굴·지원하는 렉서스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8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환경 친화적 농업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 젊은 농부들과 함께 건강한 식문화를 확산해 왔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인사

- ◆ **해양수산부** ◇실장급 승진·전보 △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수산정책실장 최현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이시원
- ◆ **한국인터넷진흥원** ◇ 팀장급 보임 △개인정보자율보호팀장 박보름

부음

▲ 유순임씨 별세, 이재준(뉴시스 전문

위원)·이동희(전 농림축산식품부)·이선희(전 고척도서관장)·이경희(근로복지공단)씨 모친상, 강인석(전 고용노동부)·김상철(인천항운노조)씨 장모상, 한성숙씨 시모상, 이종민(NH투자증권 차장)·이종석(신한서비스)씨 조모상, 강혜민(삼성전자)·강세정·김동섭·김동환씨 외조모상, 예지희(신한은행 대리)씨 시조모상=21일 오후,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3일 낮 12시. 02-2610-9472

배신자를 위한 변명



전형일의

세상이야기

지난 2020년 임영웅은 ‘미스터트롯’ 결선에서 ‘배신자’를 불렀다. 자신을 떠나버린 연인을 ‘배신자’라고 미워하는 남자의 순정을 표현한 이 곡은 1969년 도성이 처음 노래했다. 보통 리메이크곡은 시대에 맞춰 가사나 멜로디가 조금씩 바뀌기 마련이나 ‘배신자’는 원곡 그대로다. 이 노래는 중장년층에 이어 청년층에게도 애창곡이 됐다. 우리 대중문화에서 정서적 감정으로 사용되던 ‘배신(背信)’은 서양에서는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의미로 사용된다.

우선 기독교에서 가롯 유다는 인류 최악의 배신자이다. 유다는 예수를 은화 30냥에 팔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했다. 이후 그는 무죄한 죄를 팔았다며 은 30냥을 성소에 던지고 자살했다. 기독교에서는 자살 또한 살인죄에 버금가는 죄다.

역사적으로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가 배신자의 상징이다.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영구집권을 도모하자 원로원의 의원들이 그를 암살했다. 암살에 가담한 14

명의 원로원 의원 중 한 명이 브루투스다. 브루투스 어머니 세르빌리아는 카이사르의 정부(情婦)였다. 아들이 없었던 카이사르는 그를 친자처럼 대했다. 이 때문에 카이사르가 죽을 때 마지막 말이 “브루투스, 너마저…”였다. 이 문장은 믿었던 상대에게 배신당할 때 흔히 사용하는 경구가 됐다.

서양에서 ‘배신자(betrayer)’ 인식은 단테의 ‘신곡(神曲)’에 잘 나타나 있다. 서사시 ‘신곡’은 지옥·연옥·천당 3부로 구성돼 있다. 그 중 지옥 편에서 가장 끔찍한 곳은 아래 9단계로 생전에 배신한 자들이 가는 곳이다. 물론 여기에는 배신의 대명사인 유다와 브루투스 그리고 역시 카이사르를 배반한 카시우스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이 찌 배신자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예수는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었다. 예수는 최후의 만찬에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도 수탉이 울기 전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정하였다. 이 역시 예수는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언했다.

부활이라는 계획이 있었던 예수는 예언만 했지, 예방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

다가 가장 억울한 악역으로 택함을 받은 건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유다는 용서 못할 배신자로 기억되고, 베드로는 초대 교황으로 추앙받고 있다.

브루투스 역시 그 당시 일행과 함께 원로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카이사르의 독재에 맞서 로마의 공화정이라는 대의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 때문이다. 이때 그리스어 판결문의 ‘잊어 버린다’(Amnestia)’에서 현재의 ‘사면’(Amnesty)’이란 단어가 파생됐다.

언제부터인가 ‘배신’이 우리 정치권의 전유물이 됐다. 정치인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주군(主君)의 뜻을 거스르거나 조직을 떠나면 ‘배신’이라고 한다. 아마도 ‘배신’을 예전 군주제의 ‘역적(逆賊)’의 개념으로 여기는 듯하다. 이는 주군의 무능과 부패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강요하는 노예제와 다를 바 없다.

신념은 변할 수 있고 진실을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다. 이를 전향이나 회개라고 한다. 이해관계에 따라 변심하고 변절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인류의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시작됐다.누구나 ‘배신’의 DNA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전 언론인·명리학자·철학박사

창업자의 명예회복, 조직의 신뢰회복은 별개



기지수첩

최빛나
(IT부)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적 판단과 별개로 카카오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와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번 판결이 오히려 ‘면죄부’로 소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는 지난 21일 김범수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량 매수만으로 시세조종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언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카카오 측의 매수가 경영권 경쟁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사건은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됐다. 당시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통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려 하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장내 매수를 단행하며 맞섰다. 검찰은 이를 ‘인위적 시세 유지’로 규정했으나, 법원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경쟁의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법적 판단은 김범수 창업자에게 명예회복의 의미를 남겼지만, 카카오 조직이 잃어버린 신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플랫폼 독점 논란, 콘텐츠 자회사와의 내부거래, 이해상충 구조 등은 단일 사건이 아닌 누적된 불신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용자 기반이 거대한 플랫폼이 공공 인프라처럼 작동하는 상황에서, 기

술기업의 윤리성과 투명한 거버넌스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카카오의 ‘법적 무죄’보다 ‘윤리적 책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의 문제는 법을 어겼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거대 플랫폼으로서 신뢰 구조를 어떻게 재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투명한 의사결정, 내부 견제, 공정한 시장참여 원칙이 없다면 다시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산업이 기술력만으로 평가받는 시대는 지났다. 데이터 활용, 알고리즘 운영, 콘텐츠 유통 등에서 기업의 도덕적 책임이 시장 신뢰의 기준이 되고 있다. 카카오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범정의 무죄가 아닌 ‘사회적 신뢰의 법정’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는 일이다.

/vitn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23일 (음 9월 3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다정다감(多精多感)도 병. 48년생 이웃사촌이 형제보다 낫다. 60년생 상대의 단점을 캐내지 마라. 72년생 오늘 하늘에서 떨어진 횡재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눠야 한다. 84년생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상반되게 배신한다.



소

37년생 인생에 휴식이 없이 바쁘게 돌아간다. 49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밀고 나가라. 61년생 자격지심으로 고집 피지 않도록. 73년생 닦쳐올 재난을 미리 경계하도록. 85년생 오로지 참는 것이 오늘의 불운을 이겨내는 것.



호랑이

38년생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 50년생 천재라도 노력이 있어야 이어진다. 62년생 음주와 먹는 것에 유의하는 날. 74년생 이제 시작된 사회이나 미래를 재점검하자. 86년생 견조하여 가려움증이 생기니 마음도 우물.



토끼

39년생 계획을 세워 차분히 진행. 51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한계가 있다. 63년생 배려를 하지 않으니 주변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75년생 풍요롭기를 원하면 아직 시기가 남아 있다. 87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겁다.



용

40년생 미(美)시에 온전 유의. 52년생 일이 성과를 내니 명예가 높아진다. 64년생 다름이 일어나니 미리 자중하여 구설에 주의를. 76년생 불확실한 미래지만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엄청나다. 88년생 1의 숫자와 재색이 행운을.



뱀

41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여지니 인생사 두고 도는 것. 53년생 학문의 길은 다양하나 공든 탑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65년생 이사계획은 다음 날에. 77년생 오후차야 건강을 점검해보자. 89년생 여의주가 손에 들어오니 좋은 일.



말

42년생 재물 관련 일은 지장 기도를 해보는 것도. 54년생 태양은 우리 곁에 있다. 66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려버 두는 것이 상책. 78년생 앞날을 대비하는 준비성 즉 실력을 키워라. 90년생 가족의 협조로 집안일이 잘 풀여져 나간다.



양

43년생 집 단장을 하는 날. 55년생 동료와의 우정이 여러모로 도움 된다. 67년생 결혼할 사람이 찾아오니 가슴이 벅차다. 79년생 구슬을 꿰듯이 시작하는 시점을 잘 찾자. 91년생 동업자와 실랑이로 마음은 불편해도 재물은 들어온다.



원숭이

44년생 줄이 길어 기다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56년생 작은 결함으로 일을 망치니 주의를. 68년생 물이 깊어야 고기도 모이는 법. 80년생 여자가 깐 민산살에 주의. 92년생 반려견은 기쁨을 같이한다. 그러나 청결하게 하자.



닭

45년생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발생. 57년생 변동이 있어도 초지일관해야. 69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81년생 언덕이 변하여 골짜기가 되듯 변하는 게 인생사인 듯. 93년생 불어오는 바람에 마음이 흔들린다.



개

46년생 생각지 않은 초대가 있다. 58년생 밀천이 많으니 장사도 큰 이익. 70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나 외와의 곳에서 소득이 생긴다. 82년생 견문과 학식이 풍부해지면서 스스로 겸손해진다. 94년생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니.



돼지

47년생 집에서 음식솜씨를 발휘하여 즐겁다. 59년생 마음이 울적할 땐 슬퍼하라. 71년생 신세를 졌던 사람이 고맙게 신세를 갚아 온다. 83년생 오늘 회의는 내 뜻대로 찬성표가 더 많을 터. 95년생 인생의 진로를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숙제.

김상회의四季

태백산, 민족의 심장



태백산은 한반도 등줄기인 백두대간의 한가운데 우뚝 서 있다. 높이는 해발 1500미터 남짓으로 상징성은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로 물과 생명의 근원이자 한반도의 혈맥을 잇는 뿌리로 여겨진다. 옛사람들은 태백산을 하늘과 땅이 맞닿는 신성한 산이라 부르면서 일부러 찾아와 참배를 올렸다.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볼 때 태백산은 백두대간이라는 용맥이 남한 땅에서 강렬한 기운을 응축시키는 곳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신성시하고 숭배해왔다. 태백산 자락에는 예로부터 명당이 많았고 그 중심에는 혈자리가 자리하며 산과 물의 생기가 모이는 자리로 맑고 강한 에너지를 내뿜는다. 혈자리는 정기가 맑고 강한 것으로 사방에서 모여드는 산줄기가 마치 용이 몸을 감싸듯 산을 둘러싸고, 그 한가운데서 물과 바람이 흐른다.

제단과 사찰이 많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상 부근의 천제단은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성스러운 장소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나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했다. 천제단은 강력한 기운이 맺힌 혈 자리 위에 세워진 상징적인 장소로 자연의 생명력이 극대화되는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되어왔다. 단군신화에서도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온 곳이 태백산 신단수로 기록되어 있다. 단군의 맥락에서 보면 태백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천손이 내려오는 통로이면서 나라를 세운 성지로 상징되고 있다. 태백산에 얽힌 전설도 많다. 옛날 천제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릴 때는 신들이 내려와 구름과 바람을 일으키며 길흉을 점지했다고 한다. 지금도 호랑이의 기운이 서린 산으로 여겨지며 한강의 발원지로 유명한 검소소는 그곳에 살고 있던 용이 검을 물고 승천해서 그렇게 불린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한반도의 혈맥을 잇는 태백산은 심장과 같은 정기를 품고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7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88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교육부, 27일부터 ‘제20회 인문주간’ 행사

29기관 참여… 260개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장관최교진)와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오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20회 인문주간’ 행사를 열고, 전국 29개 인문학 관련 기관과 함께 26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인문주간은 인문학 대중화와 연구 성과 확산을 목표로 하는 대표 행사다. 올해는 ‘다시, 잇다: 인문학으로 잇는 지역과 공동체’를 주제로, 디지털화된 사회 속에서 지역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람과 사람, 지역과 문화를 연결하는 인문학의 역할을 조명한다.

특히 올해는 도시화·산업화로 사라져 가는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에 주목

한다.

전북 무주에서 열리는 전북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의 ‘인문학으로 만나는 무주 자연생태 이야기’ 행사에서는 시화전과 지역 특산물 요리 체험, 덕유산 어사길 탐방 등이 진행된다. 제주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은 ‘탐라에서 제주까지 동네의 인문학’을 주제로 조선시대 제주목사들의 자취를 따라 걷는 프로그램과 ‘영등굿의 울림, 제주 바당의 신화와 삶’ 행사를 마련했다.

그 외에도 인문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 및 ‘기초학문자료센터 누리집’에 탑재된 행사 안내서(가이드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25일부터 시내버스 요금 조정

‘The 경기패스’ 통해 도민 부담 최소화

경기도가 어려운 도내 버스업계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2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한다.

시내버스 요금 조정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으로 일반형·좌석형은 각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은 각 400원 인상한다. 도는 지난 7월 공청회를 열고 소비자 단체 대표·업계 관계자·관련 전

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최근 도의회 의견청취·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19세 이상 도민에게 월 이용금액의 20~53%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를 통해 도민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The 경기패스’는 2025년 7월부터 월 61회 이상이용금액 전액 환급 혜택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인천시, 27일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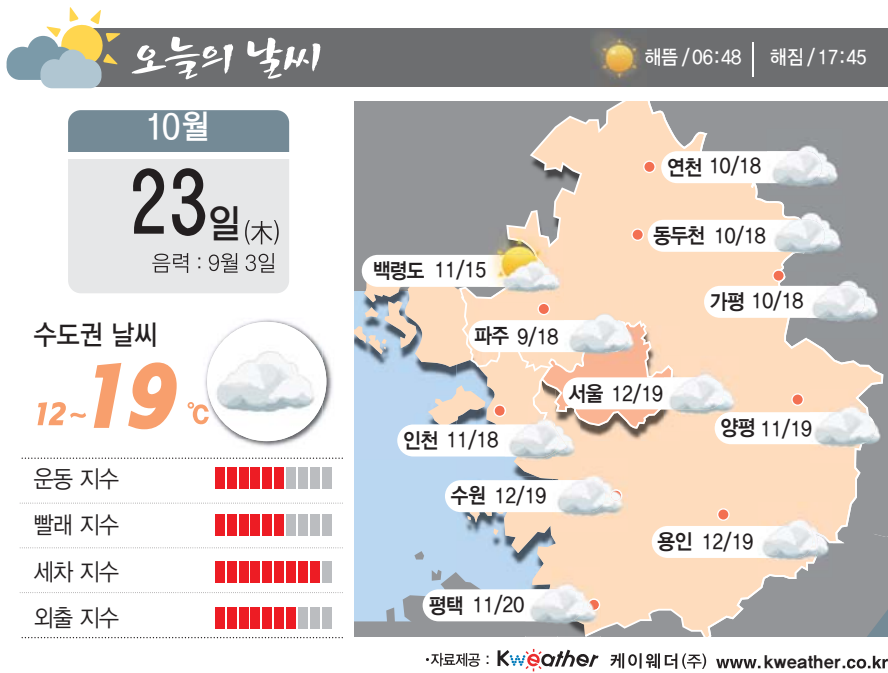
인천이 세계 한인 경제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와 ‘2025 Korea Business Expo Incheon’은 글로벌 협력과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잇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인천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 경제행사

로, 전 세계 한인 경제인과 해외 바이어, 국내 기업인 등 약 20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의 세계화와 지속 가능한 협력’을 주제로 통상위원회, 수출상담회, 투자유치설명회, 글로벌 스타트업 경진대회, 취업설명회, 문화공연 등으로 구성된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



서울시-서울교통공사, ‘러너지원공간’ 조성

“지하철에서 러닝 준비하세요”

지하철 내 탈의실 등 마련
별도 요금 없이 인증 후 이용
맞춤형 러닝 프로그램 운영

러닝 인구 1000만 시대를 앞두고 서울시가 지하철 역사 내 탈의실·물품 보관·파우더룸 등이 갖춰진 ‘러너지원공간’을 마련한다.

서울시와서울교통공사는광화문역(5호선)과 회현역(4호선), 월드컵경기장역(6호선)에 러닝 편의 및 여가문화 공간 ‘러너지원공간(Runner’s Base)’을 조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러닝을 돕는 지원시설뿐 아니라 모닝 러닝, 장거리 러닝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러너지원공간’은러너들의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내에 조성됐으며 남녀 사용 공간을 구분해 탈의실, 보관함, 파우더룸 등 운동 전후 시민들에게 필요한 장소로 구성했다.

또 헤어밴드·양말·무릎보호대·샤워티슈·파스·마사지 오일 등 실제 러너들의 의견을 반영, 운동 전후 필요한 물품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러닝용품 자동판매기’도 설치됐다.

네이버 QR 또는 카카오톡 인증으로 출입할 수 있으며, 별도 이용 요금은 없



월드컵경기장역 내 러너지원공간 모습

/서울시

다. 개인 물품보관함은 서울교통공사 ‘포타라커’ 시스템과 연계해 앱(App)으로 손쉽게 잠금과 해제할 수 있다.

각 ‘러너지원 공간’은 시민이 개인 수준과 일상에 맞춰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러닝 프로그램을 주 1~2회 운영한다.

광화문역(5호선)은 직장인을 위한 ‘모닝 러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출근 전 짧은 러닝과 올바른 자세·보강 운동을 익힐 수 있다. 주말 등에는 인왕산·북악산 트레일 러닝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남산으로 오르는 길목에 위치한 회현역(4호선)은 입문자가 러닝에 흥미를 느끼고 운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남산을 배경으로 걷기·가벼운

달리기 등 기초 체력 강화를 시작으로 점차 거리를 늘려가는 단계적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월드컵경기장역(6호선)은 상암 월드컵공원을 중심으로 부상없는 달리기를 위한 기초 러닝 스쿨과 경험자를 위한 장거리(15km 이상) 러닝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또한 슬로우 러닝, 패밀리 러닝 등 가족 단위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정규 프로그램 외에 분기별로 계절이나 테마·의미가 담긴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겨울에는 러닝 부상 예방과 회복 중심의 실내 프로그램 위주로 시민 참여를 이어간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쪽방촌 일대 주3회 순회진료

매주 월·목·금 14시~17시까지 진행
주민·노숙인 등 진료 사각지대 해소

서울시가 영양상태, 운동 부족 등으로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영등포쪽방촌 주민과 인근 거리 노숙인을 주 3회 직접 찾아가는 진료를 지난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영등포지역 재개발로 38년간 무료 진료를 이어오던 ‘요셉의원’이 서울역 인근으로 이전함에 따라 의료·진료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20일부터 매주 월·목·금, 주 3회(오후 2시~5시) 순회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순회진료는 노숙인 시설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부속의원’이 담당하고 쪽방촌과 가까운 ‘영등포보현희망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진료는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에 대한 기초 건강검진, 간단한 진료와 치료부터 의사 진단 결과 상세한 검진이 필요한 경우는 서울의료원이나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등 상급병원에 진료를 연계해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돕는다. 상급병원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서울시 노숙인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현재도 건강관리가 필요한 영등포쪽방촌 주민과 인근 노숙인 70여 명에 대해 간호사 정기 가정방문, 거리 상담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치료 및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순회진료와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이외에도 오는 28일 서울의료원 등 서울시립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나눔진료봉사단이 영등포쪽방촌을 찾아 쪽방 주민과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동진학교 기공식 개최

동부권 최초 특수학교… 2027년 개교

서울 동부권 최초의 특수학교인 (가칭)동진학교가 13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건립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중랑구 신내동 700번지 일대에서 동진학교 신축공사 기공식을 열고, 지적장애 학생

을 위한 교육공간이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동진학교는 2012년 설립계획이 처음 추진된 이후 9차례 후보지 검토와 부지 조정 끝에 2019년 현 부지로 확정됐다. 그동안 동대문·중랑구 등 서울 동부권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장애학생들

이 타 지역 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번 착공으로 학생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속에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학교는 부지면적 1만2201㎡, 연면적 1만6910㎡ 규모로 건립되며 유치원부터 전공과까지 총 18학급, 111명 규모로 202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 美·인도 무역합의 임박…관세 50%→15~16% 인하
▲ 日다카이치, 방위상에 ‘방위력 강화’ 지시…방일 앞둔 트럼프 의식

▲ 러 “미, ‘핵군축 조약 1년 연장’에 무응답…국제정세 위협해져”
▲ ‘세계로 뻗는 K-축산’ 韓-키르기스스탄 인공수정사 공동 양성



▲ 캐나다 총리 “내주 미국과 무역합의 가능하지만 상황 지켜보아야”
▲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日다카이치 총리 “한미일 협력 대응”
/사진 뉴시스



이커머스
역직구로
할로 모색
L1



Life

K-톡신
중국시장서
입지 넓힌다
L2



지퍼 한 번에 부피 ‘쑹~’... 짐은 줄이고, 여유 늘렸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브랜드 ‘압축 파우치’

여행이나 일상 속에서 부피가 큰 짐을 정리할 때 쓰는 ‘압축 파우치’는 이제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는 아이템이 됐다. 국내에서 이러한 압축 파우치 시장을 처음 개척하고 대중화시킨 브랜드는 스타트업 ‘부스터스’가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 (Branden)’이다.

브랜드의 시작은 여행용 압축 파우치였다. 여행을 준비할 때마다 캐리어에 넘치는 짐을 힘겹게 눌러 담는 불편을 해결하고자 압축이라는 기능을 파우치에 접목했다. 지퍼 하나로 짐 부피를 절반 가까이 줄이는 획기적인 제품력이 소비자들의 폭발적 반응을 이끌어 냈고 브랜드의 압축 파우치는 곧 여행 필수템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국내 압축파우치 시장 개척한 브랜드 누적 판매 800만개 돌파 ‘베스트셀러’ 캐리어 짐 줄이는 여행용으로 시작해 이불 보관 등 일상 속 불편까지 해결

이후 브랜드는여행은 물론 일상 속 불편까지 해결한다는 새로운 미션을 설정했다. 그 결과물로 탄생한 건 이불과 두꺼운 겨울 외투의 부피를 줄여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이불·아우터 전용 압축 파우치였다.

이렇듯 브랜드는 단순한 수납 도구였던 파우치를 압축이라는 개념으로 재해석해 효율적인 공간 절약 도구로 선보임으로써 일상에 꼭 필요한 생필품의 영역으로 파우치를 격상시켰다. 그 결과 압축 파우치의 원조로 독보적 입지를 구축한 브랜드는 단 3년 만에 311배의 성장세로 국내 오거나이저 시장을 선도하는 부동의 1위 브랜드로 성장했다.

현재 브랜드의 압축 파우치는 누적 판매량 800만 개,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는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자리잡으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여행용 압축 파우치로 첫 발을 내딛었던 브랜드는 짐을 책임지는 파우치가 망가질 경우 여행의 즐거움 자체를 해칠 수 있다는 생각에 제품의 기능은 물론 품질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브랜드는 부피가 큰 짐을 강하게 압축해야 하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강도 높은 나일론 원단을 자체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검증된 YKK 고강도 지퍼를 적용해 내구성을 최



브랜드 여행 압축 파우치와 계절이 지난 침구·의류를 수납할 수 있는 아우터 압축 파우치&이불 압축 파우치

대함으로써 끌어올렸다. 정밀 봉제 기술까지 더해 품질 강화에 힘쓴 결과, 압축된 짐의 강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 번 구매 시 평생 쓸 수 있는 수준의 제품을 만들고자 품질에 집중해 온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실제 제품 후기에서도 “아무리 눌러 담아도 터지지 않는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이처럼 견고한 제품 완성도는 단순히 외형과 구조만 본뜬 유사 제품들이 넘볼 수 없는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되었다. 또한 브랜드는 구매 후까지 품질을 책임지



는 A/S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브랜드가 1000억 브랜드로 등극할 수 있던 강력한 원동력은 바로 남다른 제품력에 만족한 고객들로부터 비롯된 자발적 입소문이었다.

브랜드 초기에는 압축 파우치 사용 전후의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Before & After’ 광고가 두드러졌지만, 지금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생산한 후기 콘텐츠가 압도적이다. 브랜드 제품을 활용해 여행 짐을 싸는 ‘Pack with Me’ 영상이 유튜브에 꾸준

히 올라오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불 압축 파우치가 ‘정리 꿀템’으로 소개되어 입소문을 탔다.

단순한 광고가 아닌 실제 사용자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자발적으로 확산되면서 브랜드는 소비자와 자연스럽게 신뢰 관계를 구축했고 이는 곧 브랜드 성장의 강력한 기반이 됐다.

브랜드는 최근 다양한 콘텐츠와 채널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며 브랜드 파워를 입증하고 있다.

지난 8월 에이앤이코리아 달라스튜디오 ‘네고왕’과 손잡고 진행한 협업 프로모션에서는 오픈 당일 5시간 만에 전 품목 합산 약 3만5000개 판매를 기록했으며, 행사 종료 시점에는 14만 개의 누적 판매량을 달성했다. 해당 기간에는 약 100만 명이 자사몰을 방문하는 뜨거운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높은 품질·내구성에 AS서비스까지 만족 높은 제품에 ‘정리 꿀템’ 입소문 세이프라인·폴더블 가방 등 제품군 대만, 홍콩 등 해외 시장 공략 박차

또한 최근에는 공식몰 첫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 단 1시간 만에 1억 8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해 큰 주목을 받았다. 가을을 맞아 계절이 지난 침구·의류를 수납할 수 있도록 아우터 및 이불 압축 파우치로 구성된 리빙 압축 파우치를 최대 60% 할인된 라이브 전용 특가로 선보인 것이 폭발적인 고객 호응으로 이어졌다. 한 시간의 라이브 방송 직후에도 자정까지 단 3시간 만에 8700만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해 당일 총 2억 7000만원의 판매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짧은 시간 내 폭발적인 구매가 이어진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브랜드는 압축 파우치 외에도 짐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세이프 라인 가방과 짐의 양에 따라 형태를 바꿀 수 있는 폴더블·펼치패커를 가방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여행을 넘어 일상까지 아우르는 압축·정리 솔루션 브랜드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디지털 중심의 마케팅을 넘어 오프라인에서의 고객 경험 강화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유통 채널 확장은 물론 팝업스토어 운영, 인기 콘텐츠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대만·홍콩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 진출해 있는 브랜드는 해외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지 유통망과 협업을 통해 ‘Pack It Easy’라는 브랜드 철학을 해외 소비자들에게 전파한다는 전략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수영 김연미, 전국체전서 황선우 넘고 자유형 100m 한국 신기록

/사진 뉴시스

▲남자 기계체조 류성현, 한국 선수단 중 유일하게 세계선수권 결승행
▲‘이강인 교체 출전’ PSG, 레버쿠젠 7-2 완파... UCL 리그 페이지 선두

▲빙상연맹 “‘자격정지’ 쇼트트랙 코치 관련 간접 강제 사건 승소”
▲‘디펜딩 챔피언’ OKC, NBA 개막전서 2차 연장 끝에 휴스턴 제압

SAMSUNG

Galaxy XR



samsung.com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특정 AI 기능을 사용하려면 삼성계정 로그인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에서

APEC 2025 KOREA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Powered by
Android XR